

“청소년, 청년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YWCA 1922**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YWCA 1922 장학금은 청년, 청소년 장학금과 YWCA 청(소)년 사업에 지원됩니다.  
한국YWCA 청년운동은 한국YWCA 100년을 넘어 깨어 있는 청년성과 시대의식으로 연대하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1922-0000-31 한국YWCA연합회**



온라인 모금함에서  
바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한국YWCA**

2024 AUTUMN 09+10+11 Vol.591

특집

**2024 YWCA 확대정책협의회**  
전국 회원YWCA와 만나 공론의 장 열다  
Y대담 '우리, 이렇게까지 해봤다'  
지역의 힘, 변화의 열쇠: 분과세션

**제2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사회변화를 이끄는 여성의 힘,  
한국여성지도자상

**2024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밀 빠진 독의 물이 세상을 바꾼다”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룸 넥스트 도어>**

##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한국YWCA

02.774.9702

(사)강릉 033.651.1385	(사)대전 042.254.3035	(사)속초 033.635.3523	(사)의정부 031.853.6332	(사)춘천 033.254.4878
(사)거제 055.682.4950	(사)동해 033.531.3007	(사)수원 031.252.5111	(사)익산 063.857.8910	(사)충주 043.848.3240
(사)고양 031.919.4040	(사)마산 055.246.8746	(사)순천 061.744.7990	(사)인천 032.424.0524	(사)통영 055.646.2547
(사)광양 061.762.0012	(사)목포 061.242.1611	(사)안동 054.854.5481	(사)전주 063.224.5501	(사)파주 031.945.5998
(사)광주 062.609.1300	(사)부산 051.441.2221	(사)안산 031.483.6536	(사)제주 064.711.8322	(사)평택 031.651.7701
(사)군산 063.462.4491	(사)부천 032.668.9700	(사)안양과천군포의왕 031.455.2700	(사)제천 043.645.2580	(사)포항 054.274.4444
(사)김해 055.332.6000	(사)사천 055.833.2344	(사)양산 055.367.1144	(사)진주 055.755.3463	(사)하남 031.793.7771
(사)남양주 031.577.7762	(사)서귀포 064.762.1400	(사)여수 061.654.2161	(사)진해 055.542.0020	
(사)남원 063.632.7002	(사)서울 02.3705.6000	(사)울산 052.247.3520	(사)창원 055.283.9488	
(사)논산 041.736.7393	(사)성남 031.708.2503	(사)원주 033.742.6090	(사)천안 041.575.0961	
(사)대구 053.652.0070	(사)세종 044.865.2432		(사)청주 043.265.3700	



www.ywca.or.kr

# 미디어 세상에 정의·평화·생명의 빛을 밝혀 주세요!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은  
YWCA가 지향하는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잘 표현한 작품을 선정해  
미디어 세상을 밝게 비추고자 합니다.

YWCA가 좋은 미디어콘텐츠를 계속하여  
발굴, 수상하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세상을 밝히도록  
시청자 시민들의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후원계좌**  
농협은행 301-0212-3441-71  
한국YWCA연합회

**YWCA** (사)한국YWCA연합회

# CONTENTS

Vol.591  
2024 AUTUMN 09+10+11  
www.ywca.or.kr

## 한국YWCA 목적문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24년 12월 ~ 2025년 2월 주요 일정

12월 12일	성탄예배   사무총장 이임식
12월 17일	탈핵활동가대회
12월 19일	제28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1월 7일	신년예배   사무총장 이임식
1월 14-15일	Y-탄 전국협의회
2월 19-20일	신임회장 교육
2월 20일	2025 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정기 총회

제61권 제4호 통권 591호  
2024년 12월 7일 발행 (등록번호 마 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조은영 편집인 구정혜  
편집 최수산나 이주영 김가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AM10 DESIGN 인쇄 지경문화사  
전화 02)774-0230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Korea  
구독료 연간 2만 5천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COVER STORY

2024년 한국YWCA 확대정책협의회가 10월 2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열렸다. 확대정책협의회 기간 동안 배우고 나누고 공감한 모든 것들을 되새기며 지역으로 돌아가 지역에서 '더 넓고, 더 깊게' 확장할 것을 다짐하는 전국 50개 회원YWCA 250여 명의 활동가들.



## 02

**이달의 생각**  
안전한 연대의 공간, YWCA 서다미

## 03

**말씀 묵상**  
이주여성 하갈이 고백한 하나님 최은영

## 특집 | 2024 YWCA 확대정책협의회

## 04

전국 회원YWCA와 만나 공론의 장 열다 편집실

## 06

Y대담 '우리, 이렇게까지 해봤다' 남궁혜경

## 09

지역의 힘, 변화의 열쇠: 분과세션 홍현정

## 12

**탈핵기후생명**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를 초래할 전력망특별법과 재생에너지 확대 김혜정

## 15

**평화**  
파국 이후의 희망을 보다 김성경

## 18

**소비자운동**  
'로켓배송' 뒤에 숨겨진 진실 안정희

## 20

**성평등**  
기술 매개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담아내다 남유진

## 23

**현장 | 907기후정의행진**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유에스터

## 26

**현장 | 제1676차 정기 수요시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라" 편집실

## 28

**줌:인 | 기후위기와 민생이 만나는 경제**  
1.5도 라이프스타일 이유진

## 31

**지역 탈핵 현장을 찾아 | 월성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10년 대회**  
사람을 살리는 천막농성 10년 대회 이상홍

## 34

**제2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사회변화를 이끄는 여성의 힘, 한국여성지도자상 편집실

## 36

**2024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밀 빠진 독의 물이 세상을 바꾼다" 손지수

## 39

**지역과 함께**  
청주YWCA 여세운동 여성이 열어가게 세상 김가희

## 42

**청년토크**  
오늘 나는 배달앱을 지웁니다 대학·청년YWCA

## 44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 <룸 넥스트 도어> 이윤숙

## 46

**교육현장을 찾아**  
회원YWCA 회원 담당실무활동가 워크숍 김미애

## 49

**연합회 소식**

## 57

**회원YWCA 소식**

# 안전한 연대의 공간, YWCA

지금의 청년들은 많은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매일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기대와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벌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인 상황 속에서 물가는 날이 상승하고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청년들에게 여유는 사치가 되어 버렸고, 청년으로서 이런 사회가 야속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젊은 여



성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사건과 위협은 우리의 생활 세계를 좁히다 못해 뺏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한 성범죄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가해자의 98%가 남성, 피해자의 99%가 여성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 피해자가 되어버린 여성들은 많은 회의감과 분노를 느꼈고, 공권력의 도움도 받지 못한 피해 여성은 스스로 범죄 현장에 들어가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내 가까운 지인이 나를 성범죄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주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이 젊은 여성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몇 년 전 N번방 사건을 겪었지만 미약했던 가해자 처벌, 뽑아내지 못한 범죄의 뿌리 등이 계기가 되어 더 큰,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성의 생활 세계는 어디까지 위협 받을 수 있는지 끊임없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며칠 전부터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대가 설립된 이유는 교육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 여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소멸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보호 받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하는 사회가 아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대우 받는 세상이 올 때, 자기 소멸하는 것이 여대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여성 혐오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유리 천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대가 자기 소멸할 시기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 여학생들에게 “나중에 애 낳고 육아도 하실 텐데...”라며 성차별적 발언을 하고,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하며 흥기 난동을 예고하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여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한국YWCA가 많은 여성 청년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여성 청년들이 보호받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도 공격 받지 않으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가상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 회의감과 분노를 느끼는 여성 청년들에게 아직 이 사회에도 그들의 편이 남아 있다고,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

# 이주여성 하갈이 고백한 하나님

(창16:13)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일자리, 결혼 등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다문화’란 단어가 새로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언어는 사용하는 이들에 의해 차별로 작동하기도 하는데, 다문화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들을 일컫는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주를 경험하고 있으며 자본의 흐름 속에 저임금, 미숙련 노동, 가사돌봄 등의 현장에 여성들이 많이 투입됨으로써, ‘이주의 여성화’라는 용어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주여성 하갈이 등장합니다. 하갈은 주변 강력한 신앙의 인물들(아브라함, 사라)에 밀린 여성이며 이집트인이며 종이었습니다. 필리스 트리블(Phyllis Tribble)은 성, 인종, 계급의 삼중의 차별을 받는 하갈로 소개합니다. 주인 사라에 의해 대리모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 운명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아기를 임신했으나 환영 받지 못했고, 아들을 낳은 후에는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이지요.

하갈이 임신 중에 도망을 간 곳과 아들 이스마엘과 쫓겨난 후에 간 곳은 광야로, 두 번의 광야 경험을 합니다(창 16, 21장).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왔고 먼저 ‘하갈아’ 부르시며 만나 주십니다. 하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창 16:10)과 함께 이제 태어날 아기에겐 이스마엘 곧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하갈이 고통 가운데서 부

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요(창 16:11). 마치 마리아에게 임했던 수태고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고백합니다. 비록 외국인 종이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보시는(=살피시는) 하나님(엘 로이, אֱלֹהֵי רֹאִ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고(창 16:13) 이를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조차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며 아들 이스마엘의 아내를 같은 민족인 이집트여성에게서 찾아 준 것(창 21:21)을 볼 때, 억척같이 살아냈으며 어쩌면 이를 돕는 이들도 함께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의 현실은 때론 전쟁 같습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가 차별과 폭력이 되고 자녀들조차 차별 앞에 희망찬 미래보다 무참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차별과 배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보다 많은 이주민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기에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미 먼저 이 땅에 살고 있는 선주민인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요? 적어도 Y를 만나 내 삶에 희망이 생겼고, 여러 활동가 선생님을 통해 용기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자, 하나님 나라를 일궈 나가는 작은 실천일 것입니다. 이주여성 하갈과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

# 전국 회원YWCA와 만나 공론의 장 열다

## “YWCA 운동의 가장 큰 자원은 바로 사람”



지난 10월 22일(화)부터 23일(수)까지 천안 재능연수원(천안시 소재)에서 전국 50개 회원YWCA 회장, 부회장 및 활동가들과 연합회 이사 및 실무활동가 등 총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 한국YWCA 확대정책협의회(이하 확대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확대정책협의회는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한국YWCA 정책의 목적, 방향,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운동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여 YWCA의 지속적인 실천 과제를 찾는 한편,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나누며 회원 간의 유대와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주제 강연'과 'Y-대담', '기후위기 체험부스' 35세 이하 청년회원 과 활동가들이 참여한 '청년의밤', 5가지 주제의 '분과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YWCA 정책을 실행할 주체인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고 공유와 소통을 통해 각 지역YWCA가 새로운 지역운동 시대를 열어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만남과 공론의 장이 됐다.

확대정책협의회의 첫 순서인 개회예배에서는 회원YWCA가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숨김없이 내어놓고 권역별 대표 5인의 지도를 통해 회복을 간구하며 나눔과 연대의 자리로 나오도록 이끌었다. 예배 이후 이어진 주제 강연 시간에는 '한국시민사회 운동의 변화와 YWCA 도전'이란 제목으로 박영선 교수(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의 강의를 통해 "강한 시민사회 속에 시민과 소통하는 YWCA가 되고, 변화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문제와 이슈를 해결하는 YWCA가 되자"고 강조했다.

Y-대담에서는 전국 50개 회원YWCA에서 6개 사례를 들어 회원YWCA가 도전해 봤던 운동, 캠페인 등의 활동 가운데 실패 또는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며 그 계기로 변화한 점과 향후 활동에 대한 제언을 대담 형식으로 구성했다.

<용기있는 발걸음, 새로운 도전>의 사례로 부천YWCA의 '대학청년Y 창립', 서귀포YWCA의 '달리는 쿠킹 버스(연대 및 지역사회 영향력)', 수원YWCA의 '랜선골든벨' (매주 새로운 주제로 운동을 알림)을 소개하였다. 또 <지역속으로, 뿌리를 내려>의 사례로는 부산YWCA의 '태양광발전소', 청주YWCA의 '에너지 전환운동' (에너지 생태계 조성: 에너지센터 운영, 지역조례 제정 등), 창원

YWCA의 '성평등운동(정책 모니터링, 의회 모니터링, 지역연대 등)을 사례로 패널들과 대담을 이어 나갔다. 6개의 회원YWCA 사례 공유와 운동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은 큰 감동과 긴 여운을 남기며 지역에서 시민과 함께 지역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힘이 되었다.

참석자들은 "YWCA 운동의 가장 큰 자원은 바로 사람, 우리 활동가란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다른 회원YWCA를 보면서 우리도 언제쯤 저렇게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부러움과 조급함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답을 찾으면 가능할 거란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첫째 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청년의 밤 '애프터나잇-티가 진행됐다. 만 35세 이하의 청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청년의 밤 프로그램은 연합회 청년 활동가와 회원YWCA 청년 활동가 총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만남과 교류, 연대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23일(수) 오전 9시부터 11시 15분까지는 5개의 분과 세션이 진행됐다. 분과1. 소셜 미디어로 활발하게 시민들과 소통하기(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분과2. 청년이 활동하고 싶은 YWCA만들기(권오현 빠띠 대표), 분과3. Again 아나바다!(예송니울 대표/ 김재원 리플리 대표), 분과4.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이계정 참여연대 국장) 및 분과5. 공익법인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운영사례를 통한 YWCA 법인 운영 역량 키우기(이희숙(재) 동천 변호사)를 통해 시민사회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단체들의 사례를 함께 경험하고 지역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 공익법인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확대정책협의회의 마지막 순서인 닫는 예배는 청년 활동가들의 인도로 잔디광장에서 진행됐다. 확대정책협의회에서 배우고 나누고 공감하고 실행을 모색한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고 지역으로 돌아가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운동을 '더 넓고 더 깊게' 확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이어진 풍물패 길놀이 순서에서 '더 나은 사회, 더 좋은 사회'를 향한 '변화의 상상력'에서부터 변화의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변화의 주제'로 나설 것을 길놀이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다짐했다. YWCA

# Y대담 '우리, 이렇게까지 해봤다'



지난 10월 22일(화)부터 10월 23(수)일까지 50개의 전국회원Y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YWCA 확대정책협의회가 열렸다. 확대정책협의회의 첫째날 저녁시간은 한국YWCA연합회 이은영 제2부회장의 사회로 6개 지역Y의 활동을 들어보는 Y대담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대담구성은 먼저 <새로운 시도, 용기있는 발걸음>이란 주제로 청년Y운동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있는 부천Y, 코로나시대에 회원 접촉이 어려운 환경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Y중점운동을 알리는 새로운 시도를 했던 수원Y, 생명운동으로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했던 서귀포Y의 쿠킹버스사업을 듣는 코너로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속으로, 뿌리를 내리고>란 주제로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토대로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펼쳤던 3개 지역Y - 지역성평등지수에서 늘 하위권에 머물지만 성평등운동을 묵심있게 펼치고 있는 창원Y, 고리호기 폐쇄운동 이후 에너지전환운동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부산Y, 에너지전환운동으로 지역사회신뢰를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는 청주Y의 이야기를 들었다.

## 부천Y 청년운동, 독서모임에서 출발 수원Y 온라인 퀴즈 통해 시민들 만나

각각의 Y가 발표한 활동을 요약해서 소개하면, 먼저 부천Y의 청년운동은 임행심 사무총장과의 오래된 독서모임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부천Y는 청년을 모집해서 Y운동으로 연결한 것이 아닌 오랜 기간 단 한사람이 참여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좋은 도서들을 함께 읽어왔던 활동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여러 고민들의 연장선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해야겠다는 합의를 하고 평화의 조각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했던 과정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청년Y창립 및 운동까지 이어졌다. 자발적인 청년Y운동은 해를 거듭하면서 청년정신으로 Y중점운동을 새롭게 해석해 활동하고 지역의 여러 의사 기구 안에 청년들이 대표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확장해가고 있다.

수원Y는 코로나 시대 사람들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어떻게 Y운동을 지역에서 펼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활동가들의 상상을 현실화하는 온라인기반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활동을 펼쳤다. 온라인 톨을 이용해 Y운동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고 온라인으로 접속한 사람들이 문제를 맞추게 함으로써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잡는 활동을 펼쳐나갔고 가상공간 안에서 시민들이 참여자로 들어와서 4.16을 추모하는 활동, Y-TEEN 인준식 등을 진행하며 오프라인 경계를 허무는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다.

## 서귀포Y 달리는 쿠킹버스사업 부산Y 햇빛모아발전소 태양광사업

서귀포Y는 달리는 쿠킹버스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주전역을 다니며 생명운동으로 건강한 먹거리운동을 진행하며 제주지역의 건강이슈를 운동의 영역안으로 담아내고자 하였다. 쿠킹버스사업은 주마다 레시피를 새롭게 개발·보급하면서 당뇨환자, 암환자,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쿠킹버스프로그램 이용시 발생하는 일회용품의 사용제한, 음식재료를 제주에서 나는 로컬푸드로 공급, 지체장애인들이 쿠킹버스프로그램에 참가가능하도록 버스를 개조한 과정은 Y만의 정신과 철학을 담지하고 활동가들이 움직였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부산Y의 에너지전환운동은 고리호기 폐쇄운동 이후 지역에서 에너지전환운동을 해보자는 부산Y 활동가들의 의지에 의해 시작되었다. 햇빛모아발전소를 세우기까지 운동의 철학과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모든 활동가들과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공부하였다. 지역의 공공기관, 부산시를 설득해서 태양광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부지를 제공받기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영향력있게 확산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예산을 모으기 위해 부산Y 자원활동가들 및 활동가들은 마음을 모아 시민편드를 조성했고 태양광발전소 건립과정에서 만난 여러 장애물들은 부산Y의 노력에 감동을 받는 지역의 기업들과 시민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었고 현재까지 부산Y재정에 도움을 주며 잘 운영되고 있다.

# 지역의 힘, 변화의 열쇠: 2024 확대정책협의회 분과세션 이야기

지난 10월 23일,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2024 한국YWCA 확대정책협의회에서 각 지역 YWCA가 함께한 다섯 개 분과세션은 지역 운동과 시민참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 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번 세션들은 디지털 전환, 청년 참여, 자원순환, 시민운동, 그리고 공익법인 운영 역량 강화라는 다섯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각 세션은 현재 지역 YWCA가 직면한 도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나누 는 장이 되었으며, 실질적인 사례와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2024 확대정책협의회 참가자들은 9월 중순 부터 10월 행사 전까지 한 달간 진행된 신청 기간 동안 행사 신청페이지에 기술된 각 분과 세션의 강사 소개와 주제를 보고 사전에 참여하고 싶은 세션을 신청하였다.

위 다섯 개의 분과세션 중 가장 먼저 신청된 세션이 분과 세션 5인 것을 보면서 현재 지역의 당면 과제가 법인을 운영하 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 인 할 수 있었다.

150분 동안 진행된 세션 동안 이희숙 이사가 공익법인 법제도 현 황 및 운영 사례를 설명하고 각 회원YWCA가 처한 법적 어려움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5년간 재구조화 자문위원으로 여러 법적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왔고, 지금은 후원회 법인구조연구 TF 위원이면서 연합회 법

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숙 이사는 회 원YWCA의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눈높이에 맞는 설명으로 법인 운영에 실질

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참여 소감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주제는 분과세션 1과 분과세션 4였다. 분과세션 1(소

셜 미디어로 시민들과 소통하기)에서는 이 동이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디지털 플 랫폼을 활용한 성공 사례와 실질적 홍보 전 략을 공유하였다. 참여자들은 우리 YWCA 가 온라인 홍보의 기초 단계부터 온라인 모

금을 통해 후원자가 늘어나는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생각 해보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분과세션 4(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에서는 우리가 시민과 의 접점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 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주로 교회, 동아리 활동, 지인 추천 을 통해 시민을 만나고 있으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온라인 흥 보와 SNS 활용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 창원Y 젠더관점으로 정책모니터링

### 청주Y 기후위기시대에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운동

창원 Y의 성평등운동은 오랜 세월 지역성평등지수에서 늘 하위 권에 있는 경남권역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평등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창원Y는 성평등운동을 펼쳐면서 전문적인 여성운동단체와는 다르게 기독교여성운동의 색깔을 어떻게 입힐 것인가를 오래도록 고민하였다. 그리고 성평 등운동은 젠더감수성과 철학이 기반되지 않으면 프로그램만으로 운동하는 것의 한계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역의 성별영향평 가센터를 비롯한 전문기관의 교육참여를 통해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다. 탄탄한 교육을 기반으로 도시공 간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창원의 일자리정책까지 젠더관점으로 모 니터링하고, 지역의 여성들과 100인토론회를 개최해 결과를 공유 하고 정책제안과정까지 이끌어 내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청주Y는 기후위기시대에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운동으 로 재생에너지확산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청주지역에서 탄탄 한 신뢰를 구축하였다. 청주에너지시민센터를 운영하며 에너지 전환의 원스톱 플랫폼인 에너지상담사 아토즈(AtoZ)활동을 통 해 태양광 설치를 위한 유희부지 발굴, 태양광설치의 전 과정을 돕는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에너지시민 활동으로 마을리빙랩, 생 활기술워크숍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민참여형 햇빛발전협동 조합인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의 사무국의 역할을 하면서 햇 빛발전1호기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예산지원이 끊기면서 에너지시민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노력했던


과정을 통해 배웠던 것들은 남았다는 것,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언젠가는 꿈꾸는 것들이 다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 고 있다는 나눔은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하였다.

### 끊임 없는 Y의 도전에 도전받고 위로 받다

250명의 참가자들은 지역Y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있 는 새로운 도전에,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Y의 이야기들에 깊이 도전받고 위로받았다. 또한 지역에 서 어떤 철학을 담아 Y운동을 펼쳐가야 하는지를 다시 새롭게 고 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Y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Y운동이 살아있는 운동이 되려 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6개 Y 대담에서 무 엇보다 중요했던 핵심내용은 활동가들의 Y운동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었다. 활동가들의 진정성은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장 애물을 만나고,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할 때마다 연대하고 지지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주는 사람들을 만 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사람들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 고 그 자체로 존중했던 힘이 운동의 지속성을 가져올 수 있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결과가 예상과 빗나가는 실패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노력했던 과정은 남는다는 철학, 그러기에 단 순하게 운동의 실패라고 규정지을 수 없다는 생각, 실패하는 과 정을 통해 배운 것들이 결국 또 다른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 동력이 된다는 관점 역시 Y운동이 살아있는 운동이 되게 하는 힘 이었다. 또한 Y가 주창하는 운동의 내용들이 활동가들 개개인의 삶과 일치성이 있을 때에만이 지지 않고 운동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Y와 활동가들이 있기까지 수많은 역사를 거치며 각 시대의 소명과 시대정신에 따라 Y운동정신을 우리가 사는 현 실 안에서 충실히 구현하며 운동철학을 심어주었던 선배활동가 들의 헌신 역시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다.

Y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였고, 지금도 '사람'의 이야기이며, 앞으로도 '사람'의 이야기일 것이다. 





‘청년이 활동하고 싶은 YWCA 만들기’에 참여한 참가자들.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마을 모임, 봉사활동과 같은 현장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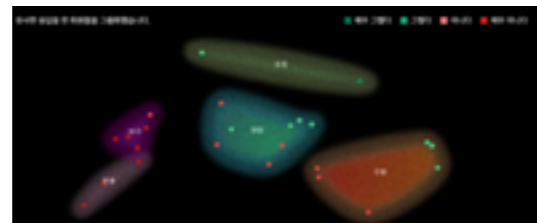
회원들이 YWCA에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를 넘어서,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토론 결과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YWCA가 여성, 근로자, 엄마 등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YWCA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두 분과에서는 모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국의 회원수가 10만 회원에서 6만 회원까지 줄어든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민들에게 YWCA가 추구하는 가치를 좀 더 자세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면서, YWCA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회원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분과세션 3 (Again 아나바다: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YWCA의 역할)에서는 자원재활용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 두 명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YWCA가 이 청년기업과 함께 자원재활용 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Nothing is useless라는 말의 줄임말인 Niu(니울)를 운영하고 있는 예솜 대표는 플라스틱 병뚜껑을 녹여서 키링으로 재창조 하는 사업을 하는 여성 청년이다. 예솜 대표는 특히 2014년부터 6년 동안 안양Y에서 Y틴으로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 했던 환경운동과 주제적인

청소년 활동이 현재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공유해서 지역에서 Y-틴을 운영하며 수고하고 있는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Refeely(리필리) 김재원 대표는 리필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종이팩 용기가 환경운동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YWCA와 리필리가 공동 개발한 ONJIGU 친환경 경삼푸 & 바디워시 리필 세트를 활용해 종이팩 재활용 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분과세션 2 (청년이 활동하고 싶은 YWCA 만들기)는 다른 분과세션들과 달리 강사가 강의를 하지 않고, 참가자들이 5~8개의 주제에 대해 세션 내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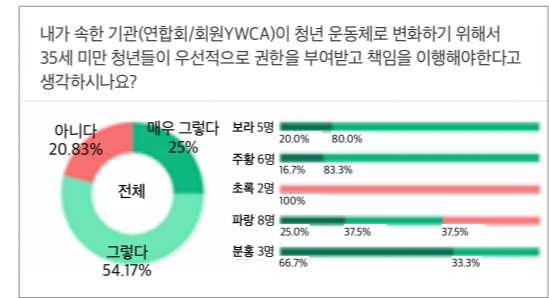
분과세션2 참여자들은 확대정책협의회에 오기 전에 빠띠에서 운영하는 demox 사이트에서 청년 활동과 연관된 주제 8개 문항을 답변하고 자신이 속한 색깔 그룹이 결정된 뒤 다른 색에 속한 사람들을 한 조로 모아서 질문에 있던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이였다.



다음은 분과세션 2에서의 토론을 기사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청년에게 권한을 줘야 성장한다” vs “권한은 부담스럽다”

청년들이 조직에서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세부적인 방법과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렸다. 20대 청년 실무활동가는 “35세 이하 청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여성 할당제처럼 조직 내에서 청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한편에서는 “권한 부여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명확한 지시와 지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권한 부여는 방향성으로 는 맞지만, 청년들이 물질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의견만 내놓으려 한다면 실제 이행 가능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우려를 표하는 지역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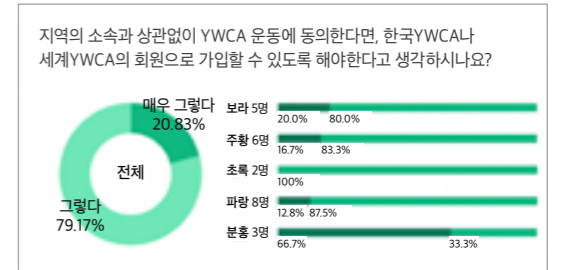


### 디지털 전환과 전국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세션 참가자들은 지역 중심의 구조를 넘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유연한 활동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분과세션 2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지역의 소속과 상관 없이 YWCA 운동에 동의한다면, 한국YWCA나 세계YWCA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원 ‘그렇다’는 대답을 하였다. 연합회가 회원을 모집하면 지역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정 반대의 결과였다.

학교를 태어난 지역에서 다니지 않고, 직장을 학교를 나온 곳에서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지역성이 뚜렷하지 않은 청년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 단위의 회원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청년 실무 활동가들이 연합회 청년이사와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천안YWCA 강기정 부회장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기 전에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 “봉사와 캠페인에서 청년 주도 운동으로”

참가자들은 현재 YWCA 청년 활동이 봉사와 캠페인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 주도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YWCA 손예지 실무활동가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활동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운동에 집중해 깊이를 더하는 방향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YWCA는 청년실무활동가나 청년자원활동가 모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했으며, 좀 더 명확한 운동 이슈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모이는 조직으로 나아가갈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 결론: 변화의 열쇠는 청년과의 소통

이번 세션에서는 청년 참여와 권한 부여의 중요성이 재확인됐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드러났다.

청년들을 조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프로그램과 자율적인 활동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참가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YWCA가 디지털 전환과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직의 청년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를 초래할 전력망특별법과 재생에너지 확대

## 재생에너지 신규발전 허가 중단과 전력계통

### 접속 차단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

지난 5월말 정부가 전력계통 포화 해소대책으로 광주와 전남·전북, 제주도에 9월부터 2031년 말까지 7년 4개월간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허가 중단과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호남권과 제주도, 동해안 일부지역 등의 변전소 205곳을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면 한전이 상시적으로 출력 제어를 할 수 있고, 변전소·주변압기·배전선로 등에 여유 용량이 있어도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송전망에 여유 용량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게 된다.

모든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된 호남지역에서는 2032년 1월부터 계통접속을 전제로 하는 발전사업 허가만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신규발전 설비를 계통관리변전소에 접속하려면 반드시 각 지역별로 정해진 해당 변전소 주변 추가 전력망이 준공된 이후에야 상업운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 조치로 인해 현재 호남지역과 제주에서 추진되었던 태양광발전과 해상풍력 등이 모두 중단 위기에 처했다. 2045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목표로 매년 4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신설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광주시의 계획 추진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2035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100%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제주

도 계획 역시 난관에 봉착했다. 당장 제주도 구좌읍 앞바다에 발전용량 100MW가 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전기사업 허가만 받으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전력계통 연계가 막혀버렸다.

## 정부가 앞장서 가로막는 지역사회의

###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국제사회에 재생에너지 확대 약속을 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내세운 정부가 지역사회 탄소중립을 앞장서 가로막으며 재생에너지 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정부의 계통포화 해소대책은 전력계통 포화를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 정부의 원전 중심 전력공급 우선 정책이 아니라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차단부터 될 일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의 핵심은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영구 정지'다. 지난 정부 계획대로 전남 영광 한빛원전 1~3호기(2,9GW)를 수명 연장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전력계통 여유도가 생겨서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전력계통에 접속할 수 있다. 현 정부가 모든 노후원전을 수명 연장하면서 원전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을 위해 호남권 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서 먼저 탈락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 전력수급기본정책과 송·변전설비계획

정부는 국가 중장기 전력 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전력수

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수립한다. 전기본의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8,9차 전기본은 원전과 석탄 비중은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두 차례 발표된 전기본은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과 정면 배치되는 원전 올인 정책으로 퇴행하였다.

이번 정부에서 처음 발표된 10차 전기본(2023.1)에서 원전은 9차(19.4GW, 2034년) 대비 10차(31.7GW, 2036년)에서 68%나 증가되었다. 10차에 이어 11차 전기본 실무안(2024.5) 역시 수요를 부풀려 추가 신규원전 계획을 수립하고 아직 연구개발단계에 있는 SMR(소형모듈원자로)마저 발전설비 계획에 반영시켰다. 수명이 다한 모든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 역시 10,11차 전기본에 포함되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수치의 절반도 안 되는 보급 목표와 석탄 화력발전은 퇴출 목표 연도도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전기본을 확정하면 이에 따라 한전은 2년마다 계획 기간을 15년으로 하는 송·변전 설비계획을 수립한다. 10차 전기본 발표 이후 한전은 신한울 3, 4호기 신규건설과 신한울 1,2호기·신고리 5,6호기 신규 운전과 수명이 다한 한울(1~2호기), 고리(2~4호기), 월성(2~4호기), 한빛(1~3호기) 등 11기 수명연장 원전 등 원전의 전력계통 수용을 우선하는 송·변전설비계획(2023.4)을 확정했다. 2036년까지 2022년 대비 송전선로 1.6배, 변전설비 1.5배를 증설하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같은 해 12월 산업부는 전력계통 혁신 대책을 통해 1MW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접속 보장제도 종료(2024.10.31)와 계통포화 변전소 주변 재생에너지 신규발전 허가불허, 계통 특별관리지역 출력 제어 계획을 밝히고, 송전선로의 건설 기간 단축과 동해안과 서해안의 초고압직류송전(500kV HVDC)건설 등 송전선로 조기 건설로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망특별법을 제정

하겠다고 발표했다.

## 밀양송전탑 사태를 부른

### 전원개발촉진법보다 더한 전력망특별법

정부 정책에 따라 국민의 힘 김성원, 이인선, 김석기 의원 등이 잇달아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하고, 민주당에서도 김한규, 김정호, 정진욱, 이상식, 이연주, 김원이, 추미애의원 등이 앞다투어 법안 발의에 가세하면서 현재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은 총 10개(민주당 7개, 국민의 힘 3)에 이른다. 10개 법안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전력망위원회 설치, △인허가 규제 완화, △각종 개발특례 규정 신설, △보상수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기존 송변전 시설 건설의 근거가 되는 전원개발촉진법(이하 전촉법)보다 더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온갖 개발특례 등을 보장하였다. 기존 전촉법은 한전이 요식적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일반적으로 입지 선정을 강행할 수 있고, 생략 가능한 주민공청회와 토지 수용권 부여를 비롯하여 한번 수립한 계획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소불위의 법이다.

전촉법에 따라 한전의 일방적 송전선로 강행으로 밀양송전탑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특별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전혀 개선되지않고 오히려 후퇴하였다. 송전망 건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요인이 주민 수용성이다. 하지만 발의된 모든 법안들은 생략할 수 있는 주민공청회 등 요식적 주민의견 청취만 있을 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기존 전촉법에서 산업부가 한전의 송전선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법률에 대해 인허가 된 것으로 보는 의제처리 법률이 20개였는데, 특별법에서는 34개로 증가했다. 백두대간보전법, 산림보존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생태계 파괴와 직접 관련된 법안들이 다수 추가되었다. 여기에 더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 파국 이후의 희망을 보다


##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비관 극복



의 축소 특례와 송변전시설의 부대시설 건설관련 신속처리 특례 등 한전의 건설 편의 위주의 법 조항들로 제정안이 만들어졌다. 국회(국민의 힘과 민주당)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통상 10년이 넘는 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현재 호남, 제주 등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 지연과 제약 사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9차 전기본과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한 전력망 정책을 수립했을 때 한전과 산업부는 원전과 화력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망을 유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한 계통 준비에 손놓고 있었다. 재생에너지 계통 대책은 방치로 일관하다가 원전 수명연장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계통 포화사태가 발생하자 재생에너지부터 희생시키며 그 책임을 특별법 제정으로 회피하고 있다.

###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 방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원점에서 특별법 재검토 필요

대규모 송변전 건설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석탄과 원전 중심의 전력망 이용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없으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송전망 신규 건설이 동반되어야 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민수용성이 더 나빠질 것이다. 특별법은 기존의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력 수요를 더 늘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일은 전력 수요 감축과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의 분산, 노후 원전·석탄의 수명연장 중단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기존 전력망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후석탄발전 폐지를 LNG로 대체하고 석탄발전이 이용하던 전력망을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을 포함하여 기존 전력계통의 최적화를 통해 송변전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담은 근본적 로드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송변전 시설 건설이 늦어진 이유는 건설관련 인허가 기간이 길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 수용성이 낮기 때문이었다. 제2의 밀양송전탑 사태를 막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시민사회와 함께 원점에서 특별법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는 탈냉전 시기에도 냉전이 지속된 대표적인 공간이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차가운 전쟁’이 막을 내린 80년대 말~90년대 초에는 한반도의 기회가 잠시 찾아오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체제 전환에 나선 사회주의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고, 북한도 일본과의 수교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남북 모두가 상대 진영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면 어쩌면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 탈냉전의 작은 기회는 창은 힘없이 닫혀버리고 말았다. 1972년 남북공동성명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지만 그렇다고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질적 변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또 한 번의 기회는 2000년대를 전후에서 찾아왔다. 2000년에 이뤄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기회를 통해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이 본격화되었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경제 협력도 활성화된 것이다. 하지만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정전체제’는 지속되었고, 남북 간의 사실상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었다.

### 한반도 통일·평화 운동의 위기

탈냉전의 시기 통일·평화운동 관련 단체와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반도 분단이라는 모순 해결 없이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70~80

년대 민주화운동의 근간에는 통일운동이 깊게 배태되어 있었고, 탈냉전 기점을 전후로 본격화된 평화운동도 악화되어만 가는 군사주의와 안보 우선주의 등을 타파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야말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유무형의 자원이 되었고, 북한의 핵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여성 단체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YWCA를 비롯한 기독교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2000년대 중반까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여성들의 교류가 본격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핵 위기가 발생하고 남한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급격하게 신자유주의화되면서 시민사회의 동력도 점차 약화되어갔다.

신자유주의적인 극단적 경쟁 체제가 일상을 장악하게 되면서 시민들은 점차 한반도 평화와 통일보다는 자신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제에 집중하게 되었다. 게다가 핵과 체제 인정을 둘러싼 남북미 사이의 줄다리기가 지루하게 지속되다 결국 2019년 하노이 노딜을 정점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그나마 이어져 온 시민사회의 통일·평화 운동의 동력도 급격하게 약화되고야 말았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최악’으로 치달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남북이 무기를 수출하면서 사실상 남북 사이

의 대리전이 시작된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구도가 본격화 되자 남한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온 반면, 북한은 이를 신냉전이라고 규정하고 새롭게 부상한 국제 환경을 활용하여 국제 제재의 틈새를 만들어 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과거 냉전의 두 세력이 맞부딪힌 지역이 한반도였고 한국전쟁이었다는 것을 상기해봤을 때 ‘신냉전’이라는 환경에서 남북 사이의 긴장 악화는 예측 가능한 일이다. 올



2022 YWCA 여성평화 순례와 포럼에 참가한 2022 평화순례단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여성평화 선언문을 읽고 평화와 만나는 모습.

해 북한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의 ‘8.15 통일 독트린’이 상호 협력이나 교류보다는 남북 사이의 단절과 긴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현재 한반도는 작은 불뿔만 튀어도 군사적 충돌로 확장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고, 연락 채널은 고사하고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강화된 상황에서 일시적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으라는 법도 없다. 문제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이다. ‘설마 전쟁이 나겠어’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도 한 몫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슈가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로 감각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소위 말해 ‘분단의 자연화’로 인해 분단 폐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약화되었고, 고차 방정식이 되어 버린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비관론도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위기는 통제 불능 상태로 악화되고 있지만 그것을 바꿔낼 동력도, 주체도 불분명한 것이 작금의 상황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대내외적

요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희망을 사유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능할까?

**파국적 사고의 힘, 새로운 상상으로 다른 미래의 가능성 그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부터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날아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에서의 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근대 사회적 법칙이었던 ‘계몽과 합리성’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이 과거로부터 배워 현재를 만들어나가고 조급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진보’라는 믿음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위기의 일상화는 결국 파국이 결코 문화적 은유가 아니라 ‘현실’임을 증언하고 있다. 발터 벤야민은 근대적 시간 개념을 비판하면서 역사는 시간의 연속체가 아니라 “항구적 파국”이라고 정의한다. 파국이 결코 역사의 위기 끝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시간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현재의 상황을 ‘파국’으로 해석하

면 이것이 언제나 내포하고 있는 단절, 다층성, 틈새 등에 시선을 돌릴 수 있다. 김홍중은 발터 벤야민의 ‘파국’의 개념을 가져와 ‘지금 시간(Jetztzeit)’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문”이라는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언급한다.<sup>1</sup> 그러면서 역사를 ‘파국’으로 이해할 경우 인류 역사에서 소외된 존재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삶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모순과 폭력에 개입하는 ‘메시아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그려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파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무엇으로 인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이야말로 파국, 그 이후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깊은 파국의 정동을 관통하고 있는 담론과 주체들의 배열과 조건을 읽어냄으로써 또 다른 가능성의 배치를 탐색하자는 의미이다. 파국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세계를 열어젖히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희망을 꿈꾸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지금이 파국적 위기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자본주의와 군사주의 이후 남북 사회 내의 모순과 정전체제라는 구조, 그리고 대외적 안보 환경**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위기는 단순히 남북관계 단절로만은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 수준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남한과 북한 사이의 온갖 우여곡절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달라져버린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일상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커다란 걸림돌임에 분명하다. 남한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첨예한 사회 모순이 불거졌지만 70년 넘게 지속된 정전체제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이러한 내부의 갈등을 봉합해왔다.

정전체제의 다른 한편인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인민들의 권리를 억압했고, 경제 발전보다는 ‘체제 유지’에 국가 자원을 쏟아 부었다. 결국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던 북한 인민들은 생존주의에 매달리면서 근근이 살아가게 되었다. 자본주의에서 경쟁에 이겨야만 하는 남한 주민과 척박한 환경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북한 주민 모두 한반도 평화나 통일이라는 거대한 담론이나 윤리적 비전 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내몰리게 되면서 결국 지금과 같은 파국에 다다랐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작금의 한반도 평화 위기는 남북 사회 내의 모순들과 정전체제라는 구조, 그리고 대외적 안보 환경 등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것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본주의와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숨죽이며 살아온 한반도 사람들을 다시금 사유해야 한다. ‘파국’이라는 파고에 몸을 맡긴 채 일상을 견뎌온 사람들이야말로 변화의 사유를 담지한 이들이자 다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주체들이다. 설혹 이들이 현재는 적극적인 행동이나 실천에 나서지 않더라도, 역사의 ‘파국적’ 순간을 간파한 순간 변화는 가능해질 것이다.

한반도가 마주한 현실은 칠혹같이 어둡다. 나침반이 되어줄 작은 촛불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군사주의(남한) 혹은 사회주의와 군사주의(북한) 아래 고난과 재난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모순을 정확하게 인지할 때, 바로 그 순간 그것을 타개할 해법이 조심스레 떠오르게 될 것이다. 결국 ‘파국’을 날카롭게 인지한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기로 한 순간에 비로소 ‘희망’이 부상할 것이다. 우리 앞에 도래한 ‘파국’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꿔내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  
1 김홍중 (2019) ‘인류세의 사회이론 1: 파국과 패이션시(patency)’, 『과학기술학연구』, 19집 3호, 한국과학기술학회, pp. 1-49.

# ‘로켓배송’ 뒤에 숨겨진 진실

##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지난 2024년 5월 쿠팡 택배 과로로 사망한 고(故) 정슬기 노동자 아버지 정금석 장로가 국회 토론회에서 외친 말이다. 슬프게도 이 외침은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피맺힌 외침과 같으니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쿠팡노동자의 사망소식은 계속 들려왔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만 21명에 달한다. 그러나 쿠팡은 사망소식이 있을 때마다 자사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다. 2020년 27살 장덕준 물류센터노동자가 숨져 과로사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을 때도, 2021년 야간 근무 후 물류센터 화장실에서 숨진 노동자가 발견됐을 때도, 지난해 경기도 군포시에서 한 배송기사가 사망했을 때는 “쿠팡 사업장은 국내 어느 기업보다도 안전합니다”라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사실을 왜곡했다.

쿠팡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 확대한 것은 올해 5월 사망한 고 정슬기 노동자의 아버지 정금석 장로를 필두로 한 유가족이 교계원로, 교회 등 기독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쿠팡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YWCA가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는 대책위원회는 쿠팡이 유가족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부르는 로켓배송(심야노동)을 중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주장하며, 쿠팡 본사 앞 1인 시위, 추모예배,

국회, 노동계, 시민단체계에 문제를 알리고 있으며, 지난 11월 쿠팡의 국회 청문회 국민청원 5만 명 동의를 달성했다.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중 1위 유통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쿠팡 및 계열사들의 총 매출은 36조원으로 신세계그룹을 제쳤다. ‘쿠팡 와우’ 유료 구독제에 가입하면, 배송료가 없고 최근에는 쿠팡플레이 등 무료 OTT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을 증가시키고 있다. ‘쿠팡 와우’ 구독료는 처음에는 한 달 2,900원이었다가, 2021년 4,990원을 거쳐 올해 7,890원으로 올랐지만 쿠팡 와우 회원수는 2024년 기준으로 1,400만 명을 돌파하며, 연간 매출 1조 3,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빠르고, 언제든지 주문-배송이 가능한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은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1년 중 한 번이라도 쿠팡에서 구매해 본 사람은 2,100만 명에 달한다.

## 쿠팡노동자의 과도한 노동과 야간 근무

쿠팡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고용 기업 중 하나로, 약 7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 보면, 비정규직과 일용직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고용 안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쿠팡 3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58.4%로, 유사한 규모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비정규직이 많을수록 노동자는 고용 불안 을 느끼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용구조는 쿠팡이 주문량에 따라 노동자를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



과 안전은 쉽게 간과된다. 일용직 노동자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위험 업무에 투입되며, 이로 인해 산업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쿠팡의 배송기사들은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일하며, 휴게 시간은 하루 24분에 불과하다. 또한, 다수의 배송기사들이 매일 밤 야간 근무를 지속한다. 야간 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만큼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쿠팡은 야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교대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교대제가 도입될 경우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비용 절감을 선택한다. 이처럼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은 과도한 노동 강도와 야간 근무로 유지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쿠팡의 성공은 소비자들에게 더 빠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루어졌지만, 이는 업계 전반의 과도한 속도 경쟁을 촉발한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쟁자들 역시 노동 강도를 높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 비슷한 고용 구조를 채택하면서, 노동 환경은 더욱 열

악해지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수익과 소비자 편익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대가로 한다면, 사회적 비용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 쿠팡 청문회의 중요성

쿠팡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국회의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쿠팡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빠른 배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다. 쿠팡 청문회는 우리 사회가 효율성과 노동자의 권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쿠팡 청문회는 이 모든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할 중요한 기회이다. 단순히 쿠팡 하나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빠른 배송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체의 구조적 문제와 대안을 논의해야 하며,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혁신과 성장의 이름 아래 노동자의 기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 노동과 효율, 그 균형점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이다. 과연 ‘더 빠른 배송’이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소비자들도 이제는 지나친 속도 경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이다. 밤새 물건을 받아야 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그 편리함이 누군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 로켓배송은 혁신적인 서비스이지만, 인간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될 때,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지속 가능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쿠팡은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의무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길이다. 🏠

# 기술 매개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담아내다

## 기술 매개 성폭력과 지금 우리의 학교

디지털 성범죄가 한국 사회를, 특히 대한민국의 '학교'를 관통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올해 1월부터 10월 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총 506명, 이 중 81.2%가 10대에 해당한다. 특히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78명에 달해<sup>1</sup> 학교 인팍의 성범죄 가해자의 저연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깊어지는 실정이다.

이는 그리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N번방을 포함한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의 흐릿한 판결들이 그 이후의 많은 범죄들의 양분이 되어왔다. 결국 몇몇 대학을 시작으로 수많은 초·중·고등학교의 이름이 거론되며 학교는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방안의 구체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딥페이크 범죄의 양상은 다양해지고, 범죄와 관련한 기술은 이 순간에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여성 학생들에게 메신저나 SNS 프로필 사진을 내리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은 채 피해 현황을 조사하는 등 혼란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지금 '기술 매개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YWCA는 성평등 운동을 지역 특화 운동으로 지정하여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을 철폐하고, 여성들의 주체

적 참여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한국YWCA의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위원들, 지역Y의 활동가 위원들은 이미 몇 해 전부터 기술 매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이에 2023년 말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의 초석을 다진 후, 성평등 운동을 담당했던 전 간사인 이한빛 간사와 남유진 위원장을 필두로 2024년 상반기에 기술 매개 성폭력 예방 교육 TF팀을 구성하였다. 2024년부터 성평등정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문화연구소 라라' 대표 노하연 위원과 시민교육 개발 및 운영 전문가 강희영 위원이 합류하여 '기술 매개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TF'를 꾸렸다. TF 구성원들은 기술의 발전이 젠더폭력을 심화하는 데 활용되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망설임없이 프로그램 개발에 돌입하였다.

## 성범죄 예방과 대응, '교육 프로그램화' 하기

프로그램 개발의 과정은 우선 대상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였다. 누가 가장 이 교육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에 중·고·대학생, 성인, 보호자, 교원 등 많은 대상이 이야기되었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이 가장 많이 요청되는 학년이 '초·중·고학년'으로 조사되어 초·중·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4회차 수업으로 프로그램의 대



상과 회차를 계획하였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에 할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하여 4회차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지만, 각 회차들을 모듈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을 위해서 모인 전문가들이지만, 개발을 위해 여러 번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 차례 회의를 거듭한 후 초안을 개발하고 피드백 회의를 거친 후 성평등 전문가 4인에게 자문을 요청하였다. 그만큼 초·중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 특히 성범죄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의 무게가 크게 와닿았고, 책임감과 사명감,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전체 진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한 이한빛 간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강희영 위원은 사례와 자료 조사를 담당하고 남유진 위원장과 노하연 위원이 프로그램의 세부 방향과 내용을 구성하였다.

## 4회차에 걸쳐 건네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대화

'기술 매개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총 4회차이다. 우선 1회차는 디지털 시민성과 기술 매개 성폭력에 대해 다룬다. 디지털 기술 활용의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책임감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아이들이 일상에서 머무는 디지털 세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공간의 영향력과 그 안에서 안전하게 존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2회차는

따돌림/괴롭힘, 즉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으로, 또래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우리가 알던 학교폭력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학교폭력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룬다. 3회차는 피싱에 관한 내용으로, 온라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차원에서 '모르는 사람'과 아이들이 규정하는 '모르는 사람' 등을 비교해 보고 그 개념을 확실히 하도록 한다. 마지막 4회차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관한 내용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학교에서 형성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와 교제폭력, 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모든 회차에, 주제에 적합한 참여형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TF팀원들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술 매개 성폭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며 중시한 부분은 경각심과 문제의식을 강조하다가 결국 '하지마라'만으로도 가득 찬 시간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즉 예방적 차원을 강조하는 수직적 전달식 교육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학생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변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의 모든 회차에는 학생들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활동이 배치되어 있고, 학생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교육 영역에 있어 '완전성평등'을 이룩한 나라로 거론된다. 학령기 학생들의 초·중·등 취학률, 이수율, 여성들의 고등교육 취학률 등을 수치로 보았을 때 한국은

+++

<sup>1</sup> 경찰,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964건 수사...506명 검거(2024.10.30.) <https://www.yna.co.kr/view/AKR20241030057300004>

이미 성평등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여성들은 안전함을 보장받지 못하고, 교육 내용에 있어, 진로의 선택에 있어 여전히 젠더화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졸업 후에도 엄청난 간극의 성별임금격차를 개인의 힘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한국 교육 시스템이 마주한, 새롭지 않은 문제들이다.

한국YWCA 성평등정책위원회의 TF에서 개발한 '기술 매개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회복하기 위해 어쩌면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식보다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

식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식,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다룬다. 많은 이야기들이 동시에, 순차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초등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였다. 초등 고학년 학생들은 최근 기술 매개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었으나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교육 주요 대상으로는 포착되어오지 않았다. 추후 중등,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의 확장을 기대하며, 이 프로그램이 성평등 운동 활동가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는 많은 학교강사들에 의해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 ◆◆◆◆ 기술 매개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

지난 여름, 대한민국은 또다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으로 많은 이들을 아픔과 분노하게 하였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한 성폭력 또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딥페이크 텔레그램 성폭력 사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서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한국YWCA는 오래전부터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을 철폐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으며, 성평등정책위원회와 회원YWCA의 활동가들은 기술 매개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남유진 성평등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약 1년간의 연구를 통해 기술 매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12월 중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PPT 자료, 활동지,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 현장 등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앞으로도 한국YWCA는 지역 회원YWCA와 협력하여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회차	주제	학습목표	내용
1	디지털 시민성과 기술 매개 성폭력	디지털 기술 활용의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책임감을 함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사 및 프로그램 소개</li> <li>[개별활동] 나만의 피드 꾸미기</li> <li>[디지털 세계에서의 시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머무는 디지털 세계 - 디지털 시민성이란?</li> <li>- 디지털 공간의 영향력 - 디지털 공간에 안전하게 존재하기</li> <li>-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amp; 신고번호</li> </ul> </li> </ul>
2	따돌림 괴롭힘 (학교 폭력)	또래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수업 회고</li> <li>[개별활동] -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 주변인 게임</li> <li>[조별활동]</li> </ul>
3	피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수업 회고</li> <li>온라인 관계 생각해보기</li> <li>사례 읽기</li> <li>[조별활동] - 온라인 관계 속 성범죄</li> </ul>
4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수업 회고</li> <li>[개별활동] - '친밀한 관계'란? - 온라인 그루밍 - 교제폭력</li> <li>[조별활동] -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li> </ul>

##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9월 7일(토)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는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3만 여 명의 목소리가 가득 메웠다. 매해 9월 유엔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국제적 기후정의행진은,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각각 3만 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바 있다. 올해 907기후정의행진은 전국 615개 단체가 참여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 강남 일대를 비롯, 대전·부산·제주·포항·지리산(산청), 통영 등 6곳에서도 동시에 행사를 진행했다. 전국YWCA 역시 각 지역 및 서울에서 열린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했다.

실가스 감축을 넘어, 기후 불평등·부정의에까지 맞서는 기후정의운동을 선포하는 의미로, 오랜 기후운동의 슬로건인 '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에서 가져왔다. 행진의 세 기조 역시 '기후위기 시대 존엄한 삶을 위한 투쟁'부터 '탈핵·탈화석연료·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신공항·국립공원 케이블카·4대강 개발사업 등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에 이르기까지 기후정의의 폭넓은 의제를 포괄했다. 오픈마이크와 사전부스에서 다양한 참가자와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오픈마이크에는 다양한 청소년들과 돌봄 노동자, 지역 주민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907기후정의행진은 기후위기 극복을 넘어 기후 불평등과 부정의에 맞서는 기후정의운동을 선포했다.

났고, '모두의 홀라'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형상화한 홀라 공연을 펼쳤다. 또한 Y-틴을 비롯, 총 36개 단체가 사전부스를 운영했다. 각 운동별로 사전집회도 곳곳에서 열렸다. YWCA는 “기후정의의 시작은 탈핵부터”를 함께 외치며 탈핵사전집회로 모였고, 그 외에 천주교의 거리미사, 발전 비정규직노동자 집회, 기후위기에 저항하는 동물들의 행진 등 각계의 목소리를 모았다.

본 집회는 1부 '기후재난의 폭력과 우리의 존엄'으로 기후 재난 속 노동자와 여성농민, 팔레스타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량과 기후정의합창단의 공연으로 열린 2부 '기후부정의에 맞선 투쟁의 현장' 순서에서는 신공항 건설을 막아내고 있는 가덕도와 보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그리고 동물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목소리가 울렸다. 마지막 3부 '기후정의의 향한 우리의 대안'에서는 기후현범소

원의 결과와 의미에 대해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부정의한 핵발전, 석탄발전과 송전탑 건설에 맞선 싸움이, 공공재생 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외침이 있었다.

“쏟아지는 폭우, 녹아내리는 폭염, 우리는 오늘도 재난을 마주합니다.” 다함께 읽는 선언문은 907기후정의행진 당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기후재난의 현실에 대해 여실히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부추기는 에너지 체제는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질문했다. 국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내세우며 더 많은 발전소와 송전탑을 건설해왔다. 그렇게 생산된 전기는 핵발전소 지역에서 갑상샘암이 되고, 석탄발전소 지역에서 폐질환이 되기도 하며, 송전탑 건설 지역에서는 공동체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몇몇 민간기업과 해외 기업의 먹거리로 전락하고 에너지 공공성은 사라지고 있다. 산업과



Y-틴들은 사진부스를 운영했다.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행진하는 Y-틴들.

경제성장을 위해 무한정 늘어나기만 하는 전력 수요를 늘리면서 핵 위험과 온실가스를 늘리는 위험한 질주 속에 '민생'은 없었다.

'녹색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기후대응사업은 되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국립공원과 그린벨트도 규제 합리화 명분으로 보전의 끈을 잃었고, 공항 건설로 갯벌과 산이 사라지고, 강을 막아 물을 가두는 댐 사업과 케이블카를 위해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이익과 경제성장이 자연과 생명보다 우선인 것이 당연한 사고방식과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타들어 가는 듯 했던 올 여름이, 남은 시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 최고의 시간이 지났더라도, 세상을 바꿀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

다. 907기후정의행진에는 기후정의를 함께 외치는 우리의 연대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우리'들이 모였다. 행진은 본집회가 열린 강남역에서 출발했다. 구글코리아, GS칼텍스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이 위치한 역삼역에서는 이윤에 의한 생태파괴에 맞서는 행동이, 쿠팡로켓연구소가 있는 선릉역에서는 기후재난과 불평등에 맞서는 행동이, 포스코 사거나 앞에서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대형 만장을 펼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 행진이 끝나는 지점에서 전체 참가자는 함께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907기후정의행진이 끝났지만, 세상을 바꿀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어느 자리에서 누구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이기에 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라”

“역사 부정세력들은 평화비 테러와 같은 비인권적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국제 사회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여성폭력 근절의 상징적 과제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 협력하라.”

11월 27일(수),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한국YWCA연합회 주관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676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폭설이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YWCA연합회의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30여 명이 참여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여성 인권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수요시위는 한국YWCA연합회 최수산나 시민운동국 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난 11월 24일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운동가인 고(故) 에스테리타 바스바노 디 할머니를 추모하는 시간으로 시작됐다.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들의 힘찬 여는 노래 ‘바위처럼’으로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였다.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이 주관단체 인사를 통해 102년간 모든 형태의 여성폭력 철폐를 위해 활동해 온 한국YWCA의 역사를 소개했다. 또한, 조은영 회장은 “한국YWCA도 지난 총선의 정책 의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과 왜곡,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히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하루 속히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하고, 우리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주간보고가 진행됐다. 이나영 이사장은 주간보고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문제와 한국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비판하면서 현행 법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4일(목)부터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대한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김용만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 금지, 소녀상 손상 및 오욕 금지 및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기에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의연은 국민동원청원을 시작했고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연대단체와 시민들의 힘으로 5만 명을 조기 달성했다.

이에 해당 개정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됐으며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나영 이사장은 연대와 동의에 감사를 표하며 “법사위



통과와 국회 본회의 등 갈 길이 멀다. 12월 10일 정기국회 마감 전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강경화 Y-틴 전국협의회 부회장, 유은비 한국YWCA연합회 간사, 현빈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의 연대발언으로 이어졌다. 강경화 Y-틴 전국협의회 부회장은 발언문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와 여성폭력을 함께 고발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연대해야 한다.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유은비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는 “정부와 국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여성 청년의 목소리로, 이 문제가 대한국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전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현빈 활동가는 “일본과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가 식민주의, 군사주의, 그리고 성차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외쳤다.

마지막으로,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과 추은지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는 피해자 보호와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역사 부정을 일삼는 세력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사죄를 요구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한국YWCA의 주관으로 진행된 제1676차 정기 수요시위는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여성 폭력 철폐를 위한 국내외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로 기록됐다.

# 1.5도 라이프스타일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중요한 2025~2028년, 우리는 이 시기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보내게 되었다. 그는 기후 위기를 '사기'라고 주장하고, 석유와 가스채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안정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일까? 달성이 어렵다고 1.5°C 목표를 포기해야 할까? 포기한다면 지구에서 벌어질 기상재난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한편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원전 정책만 남았다. 윤석열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3기와 4기의 SMR도 포함했다. 산업부는 [2050 원전 로드맵]을 통해 원전 운영 고도화, SMR선도국 도약, 원전 수출산업화 등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원전 산업을 추진할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기후 운동도 탈핵 운동도 힘이 빠지는 시기다. 하지만 '희망'과 '대안'이라는 두 단어를 꼭 붙잡고 싶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시민이 기후와 탈핵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도넛 모델'과 '1.5도씨 라이프스타일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다.

## 기후위기 대응과 삶의 사회적 기초를 다지는 '도넛'

녹색전환연구소가 2025년도에 주목한 도구는 도넛이다.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이야기하면 종종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과 같은 실천 방법이 나온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관

심을 갖도록 하려면 기본적인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노력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 위스가 제안한 도넛 모델의 핵심은 '생태적 한계'와 '시민들의 적절한 복지를 동시에 만족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도넛 모델을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역이 온실가스 배출량, 토지 개발, 대기오염, 화학 오염과 같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용량, 즉 생태 용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삶의 기초를 이루는 주거, 식량, 교육, 소득과 일자리를 잘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녹색전환연구소에서는 2024년 인구 50만이 넘는 서울의 도시 노원구와 석탄발전소 폐쇄를 앞둔 보령시를 대상으로 도넛 연구를 진행했다.



## 어린이들이 그린 보령시 도넛

도넛을 그려보면 어떤 부분이 생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복지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채울 수 있다. 보령시의 경우 대기오염은 기준량을 초과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세계 평균에 비해 한참 못 미치며, 폐기물은 충남 평균보다 높다. 도넛의 안쪽에서 주거, 이동성, 소득, 다양성이 '부족'으로 평가되었다. 보령시가 도넛을 기준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보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적정주택의 공급, 공공교통 확대,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데 예산을 써야 한다. 이런 도넛 모델을 만들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도넛을 그려보기도 한다.

보령시에서 도넛 워크숍을 했을 때,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어린이들은 교통 영역에서 대해, '부족'이라고 판단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해요", "시내버스가 많이 없어요", "고장난 신호등이 많아요",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어린이들의 의견을 듣고 연구진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걷는 것'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연구진은 공공교통, 자전거 도로, 버스배차 시간에 집중하느라 '도보'를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자전거와 걸어서 주로 이동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이 부분이 보였던 것이다. 그 외에도 어린이들은 "휴식 공간은 많지만, 응급의료체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깨끗한 공기를 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집세와 냉난방비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노후 주택과 신축주택 사이에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태양광 발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원이 필요해요" 라고

의견을 주었다. 도넛 모델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이런 논의에 참여한 것에 대해 "어른이 된 것 같아요"라고 답을 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세대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어린이 도넛 테이블>처럼 정책 마련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해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 1.5°C 라이프 스타일 계산기

더 많은 시민이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하도록 만들 두 번째 도구는 1.5°C 라이프 스타일 계산기다.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평균 기온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우리가 목표를 정했다지만 그 목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감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의 사람들이 1.5도씨를 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거야?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걸 체감할 수 있도록 1.5°C 라이프 스타일 계산기(<https://15lifestyle.or.kr>)를 만들었다.

2018년 전 세계 기준 1인당 탄소배출량 4.6톤을, 한국은 13.6톤을 배출한다. 한국의 1인당 배출량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서 매우 높다. 1.5도씨를 넘지 않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하려면 전 세계적으로는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는 1인당 2.5톤, 2040년에는 1.4톤, 2050년에는 0.7톤으로 줄어야 한다. 이것을 한국에 적용하면 현재 정부가 잡은 탄소중립 계획은 2018년에 비해 40%를 줄이기로 했으니, 라이프스타일 목표로 40%로 줄인다면 2030년에는 5.9톤을 배출해야 한다. 물론 이 목표는 청소년 기후소송에서의 시급성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목표치이기도 하다.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주거, 교통, 먹거리, 소비, 여가 총 다섯 개 분야 영역별로 답을 하고, 그 결과 개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잘사는 국가에 살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개인들은 내연기관 자가용, 비행기, 전력 사용, 식자재 구매와 외식 등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국

가마다 편차가 있지만, 주거, 교통, 음식은 개인 온실가스 배출의 79%를 차지하고 있어서 먹는 것과 이동과 주거의 양식이 바뀌면 온실가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다.

### 개인의 삶과 사회시스템의 변화

1.5°C 라이프스타일 계산기는 개인 삶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한 후에 “이제 배출량을 알았으니 여기에 클릭”을 누르면 어디에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개인의 삶의 양식 변화와 연동된 것이 어떤 정책이 있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정책 제안으로 연결한다.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안전하게 자전거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요구하고, 분리수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 재사용 시스템을 갖추고 아예 제품 생산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기업의 변화를 촉구할 수도 있다. 개인과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현재 1.5°C 라이프스타일 계산기는 1만명이 넘게 참여했고, 특히 학교 교육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이 민생대책

도넛 모델과 1.5도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



던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 사람들의 삶은 낮게 만드는 민생대책이라는 사실이다. 정부가 폭염과 한파, 슈퍼 태풍을 견딜 수 있는 적정 주택을 모두에게 공급하는 일,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보가 안전한 인프라를 갖추는 일, 기후위기에 민감한 농업과 축산, 수산 분야 대책을 통해 농어민과 식량을 지키는 일, 원전과 석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그것을 녹색일자리로 연결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생태적 한계 안에서 사람들의 삶을 낮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좋은 정책들이 있다. 서울시 성동구는 2023년 폭우에 반지하 일가족 사망 사고 이후, 성동구 반지하 가구 전수 조사를 통해 안전설비를 구축하고,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한 반지하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연탄난방 없는 성동구를 만들었다. 경기도 광명시는 녹색건축지원센터를 만들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해 외부 단열, 창호, 방수, 지붕, 외벽, 담장 등을 개선하는 한 집수리 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상북도 청송은 완전히 무상버스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정선, 양구, 평창, 신안 등 공공버스를 강화해서 교통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좋은 기후정책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이 선거에서는 17개 광역시도지사, 226개 기초지자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 4,000명 이상을 선출하게 된다. 이 선거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탈핵의 의지를 가진 리더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그들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치려면, 시민들이 기후정책을 지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구현할 정책이 있어야 한다. 녹색전환연구소는 2025년 6월, 지방선거 1년 전에 “내 삶을 지키는 기후정책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의 기후정책은 시민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시민이 만드는 기후공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사람을 살리는 천막농성 10년 대회



천막 농성 10년 대회에 발언자로 나선 황분희 부위원장(왼쪽). 행진에는 '이주대책위' 탄압 말고 이주대책 마련하라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많이 모여주시니까, 저쪽 편(한수원)에서 보기에 ‘아 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구나’ 하는 것도 인식시키고, 정말 고맙습니다. 내 다리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음성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받아서 정말 끝까지 하겠습니다.”

황분희 부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이었다. 행진을 마치고 천막농성장 앞에 놓인 화단 경계석을 밟고 올라서서 비를 맞고 있는 벗들에게 청중들에게 둘러싸여 건넨 마무리 인사였다. 200여 연대자들이 “와~~~” 환호하며 박수로 화답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2시간 넘게 진행된 야외 행사에도 불구하고 황분희 부위원장의 얼굴은 피곤한 기색 없이 행복한 미소로 가득했다. 근래에 보기 드문 얼굴이었

다. 9월 21일의 천막농성 10년 대회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경찰의 중재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지금의 천막 농성장을 꾸렸다. 이름하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파란 많은 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농성이 어언 10년, 핵발전소 앞 최장기 주민 농성이 되었다.

천막 농성에 참여하는 주민은 처음 72가구에서 지금은 3-5가구로 줄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출근 시간에 맞춰 농성장에서 월성원전 정문까지 느린'상여행진'을 한다. 왕복 500여 미터 거리를 모형 핵 드럼통과 자신의 이름이 쓰인 관을 끌고 30분간 천천히 걷는다. 출근길은 꼭 막혀 긴 차량 행렬을 만든다. 그렇게 1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민들의 얼굴과 손발은 주름이 더욱 깊이 파여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

나름 좋았던 문재인 정권 5년도 그냥 그렇게 흘러갔고, 핵 발전을 신중단지처럼 모시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주민 이주는 더 언감생심이다. 싸움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길이 보이고 하루하루 나아져야 하는데, 이주 문제는 정말이지 철혹 같은 어둠만 더해간다. 앞으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10년을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천막농성장에 다녀간 인연이 셀 수 없이 많다. 한국 YWCA처럼 활동가 또는 회원들이 단체로 여러 차례 방문한 곳도 있고, 조용히 다녀간 개인도 많다. 월요일 아침 상여 행진에 동참하기 위해 새벽에 출발해 오는 사람도 있고, 일요일 경주에 도착해 숙박하고 상여행진에 참가하는 이들도 있다. 투쟁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갈지 답은 보이지 않지만, 일단 모여서 서로를 확인하고 격려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필요했다. 천막농성 10년 행사는 그렇게 준비했다. 쌓인 인연들이 한날한시에 한자리에 모여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받는 자리면 족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핵발전소 터미널 농성장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천막 농성장에 압류장이 붙었다. 방문객들이 오면 집회하고, 예배를 올리고, 미사를 드

리던 농성장 앞 작은 마당에도 화단이 조성됐다. 불과 몇 달 전에 한국YWCA 활동가들이 둘러앉아 현장기도회를 열어 기도 드리던 그 공간을 빼앗겼다. 그래서 이번 천막농성 10년 행사도 농성장에서 하지 못하고 해안가 솔밭에서 해야만 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마을 분위기도 나빠지고 있다. 한마을 주민 중 일부가 농성장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을 암암리에 받아서 면사무소에 제출했다. 밤사이 농성장에 설치된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최근에는 “지역, 경제 살리는 계속운전 20년 확대 검토! 황주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현수막이 마을 곳곳에 게시됐다. 한수원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30년짜리 핵발전소를 20년 더 쓴다는데 주민들이 왜 감사 인사를 올려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상투적인 분석이지만 이 모든 변화의 뒤에 ‘돈’이 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정책이 다시 추진됐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월성 2, 3, 4호기도 수명연장 대상이고 이미 절차를 밟고 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되던 2015년 한수원은 1,310억 원의 보상금을 내놓았다. 단순 계산을 해도 세배 곱하면 3,930억 원, 약 4천억 원의 보상금이 예정되어 있다. 그야말로 돈벼락의 시각이 째각째각 다가오면서 월성원전 인



근 주민들의 이성이 점점 마비되고 있다.

남미 등 제3세계의 환경 운동가들은 환경운동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자본의 개발에 맞선 활동은 테러의 대상이 되기 쉽다. 아마존에서 고무 농장 숲을 지키던 브라질의 치코 멘데스도 1988년 성탄절을 앞두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벌목업자의 총에 맞아 마흔네 살의 생을 마감했다. 그는 테러의 위협을 알고 있었으나 성탄절만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었던 마음에 결국 총탄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이주대책위를 보면서 치코 멘데스가 계속 생각났다. 4천억 원의 보상금 앞에서 어쩌면 청부 살인이 발생해도 이상할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핵발전소 3기의 수명연장을 앞둔 핵 추진파에게 코앞의 천막농성장은 눈엣가시다.

그래서 이주대책위 주민들에게 10년 대회가 더욱 간절했다. 두둑하게 쌓아온 인연들이 다시 찾아와 큰 목소리 내어 주기를 바랐고, 그 염원은 9월 21일 보기 좋게 이뤄졌다. 때 아닌 폭우 속에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저마다 사연이 가득한 200여 연대자들이 솔밭으로 모였다. 특히, 기록 노동자인 일곱번째별 님은 8월 25일 고성통일전망대에서 자거전로 출발해 동해안 도로를 한 달간 달려 10년 행사에 참여했다.

천막농성 10년 대회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옥죄어 오는 울가미에서 주민들을 구출하는 장엄한 의식이었다.

풍물, 낭독회, 연극, 노래 등 여러 장면이 천막농성 10년 대회를 장식했고, 그중 경주 시민 12명이 집단 창작한 칸타스 토리아이주대책위 10년을 말하다가 중심에 있었다. 2미터 폭의 대형 광목 10장에 지난 10년의 투쟁을 그림으로 담았다. 그림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10년을 반추하고 그림 속 사건에 관계된 연대자들이 무대로 나와서 소회와 결의를 밝히는 형식으로 2시간 가량 행사가 진행됐다. 일주일에 걸쳐 완성한 10장의 그림 덕분에 쏟아지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연대자의 이목을 무대로 집중하고 감동을 자아냈다.

폭풍처럼 천막농성 10년 행사가 지나고 이주대책위 주민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움츠렸던 어깨는 예전보다 힘이 들어가고, 월요일 아침 비록 4명이 상여행진에 참여해도 당당히 걸어간다. 힘겨울 때 언제든 달려올 든든한 뒷배가 있음을 폭우 속 10년 대회를 통해 체험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이주 문제는 철혹 같은 어둠이지만, 월요일이면 연대자들과 핵발전소를 향해 걷는다.

천막농성 10년 대회에 참석한 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의 이름을 이곳에 기록으로 남긴다. 김명순, 김진선, 성혜중, 신용화, 황분희. 그리고 개인 및 단체 88곳에서 8,583,200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셨다. “이주만이 살길이다.”

# 사회 변화를 이끄는 여성의 힘,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이혜숙 소장, 젊은지도자상 추혜인 원장



11월 19일(화) 오후 2시, 페이지명동 온드림사이언티어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에서 한국과학기술 젠더혁신센터의 이혜숙 소장에게 대상을,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추혜인 원장에게 젊은지도자상을 수여했다.

## 대상 이혜숙 소장, 여성과학기술인 양성과 젠더 혁신을 통한 제도적·정책적 환경 개선

이혜숙 대상 수상자는 과학기술 분야에 내재된 성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왔다. 이화여대 교수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으로 활동하며, 여성청소년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진출을 독려하는 WISE(Women in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램과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 두 프로그램은 현재 국가적인 인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여성 과학기술인의 유리천장을 허물기 위해 각종 협회와 단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여성 연구자들이 주요 연구와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과정에서도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힘써왔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초대 소장으로 젠더 혁신이 단순한 사회적 요구를 넘어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끌어내는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며, 성별 특성을 고려한 포용적인 연구개발 확산과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는데 촉구하는 등 우리 사회가 성별

균형을 이룬 과학기술 생태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젊은지도자상 추혜인 원장, 여성주의적 진료 실천 및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모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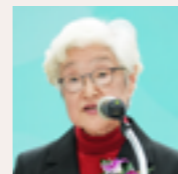
추혜인 젊은지도자상 수상자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을 설립해, 의료 소외계층과의 연대와 포용적 의료 서비스를 실천해왔다. 여성주의적 진료 철학 아래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다양한 배경의 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중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왕진을 통해 건강권 수호에 기여했다. 추혜인 원장은 의료 시스템 내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별히 제22회 시상식에서는 '미래를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토크세션이 진행됐다.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토크세션에서 수상자들은 이 길을 걷게 된 계기와 고민 등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했다. 이혜숙 소장은 "일반 사람들이 젠더혁신 인식을 가지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과학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빅데이터도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사용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젠더편향

적인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지적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추혜인 원장은 "의료와 돌봄을 통합해나가는 데 있어서, 의료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먼저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돌봄이 너무 중요하고 돌봄 노동이 숙련이 필요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데 현재 우리 사회는 평가절하 되고 있다"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후배 여성 리더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이혜숙 소장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존의 권위와 기존의 과학기술현장이 아닌, 새로운 관점, 여성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용기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말하면 좋겠다"라고 전했으며, 추혜인 원장은 "체력과 친구를 잘 유지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크세션은 수상자들의 도전과 성취를 조명하며, 여성 리더십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올해로 22회째를 맞으며, 창조와 봉사의 정신을 발휘해 여성 지도력 향상에 공헌한 여성 지도자에게 대상을, 미래 여성의 역할을 열어가는 50세 이하 여성에게 젊은지도자상을 수여해왔다. 최근 역대 수상자로는 제주올레 서명숙 님, 김중미 작가, 김초엽 소설가, 노영선 교수, 이진희(주)베어베터 공동대표 등이 있다.

### 수상 소감



대상

이혜숙

평소 존경하던 선배님들께서 받으셨던 상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고 저와 동료들에게 무한한 용기와 감동을 줍니다.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시대를 맞아 기술 혁신의 형평성, 다양성, 포용성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으며, 젠더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젠더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정책 개발, 젊은 과학자의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과학기술 발전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포용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지도자상

추혜인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5천여 명의 조합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살림의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만들고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의료 지원,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진료, 중증 장애인을 위한 왕진 등의 진료를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더 열심히 해나가는 의미로 상을 주신 것으로 알고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밑 빠진 독의 물이 세상을 바꾼다”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는 2022년 (사)한국YWCA연합회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된 청년 지원공모사업으로, 청년들을 ‘응원’하고, 청년들이 소망하는 세상을 이루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프로젝트다. 2022년 13개팀의 청소년, 청년을 지원했고, 2023년부터는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는 여성청년활동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YWCA는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 스스로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도록 힘쓰고 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YWCA 목적에 맞는

여성청년활동가들을 온라인을 통해 공모했고, 1차 서류심사 28개팀 중 최종적으로 3팀이 선발되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여성청년활동가 3팀 선발

서초구에 위치한 숲나학교 내 청소년 페미니즘 동아리 ‘위드’ 팀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교내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2021년 교내 여성학 스터디를 통해 일상 가까이에 접해 있는 성불평등 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교내 비상 월경대함과 성과 관련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창구인 소리함을 설치하고, 성인지 교육 주간, 여성청소년영화제를 개최했다.

서울과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록놀이터’ 팀은 한국 기독교장로회 소속 목사, 전도사,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절기에 맞춘 기독교 어린이 생태교육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비량으로 운영되고 있던 유튜브 콘텐츠를 보강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 실행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5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편씩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했고, 지난 10월에는 군산 내 녹색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철새야 놀자’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생태캠ป์를 진행했다. 12월에는 전국의 교회학교에서 생태교육 콘텐츠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전자책도 발간할 예정이다.

전남 구례에서 활동하는 ‘컬렉티브 호이요’ 팀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임을 기획하고, 소리와 이미지를 매체로 지역 생태계를 탐구하는 팀이다. 서울에서 구례로 귀촌함과 동시에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에 선정 되었고, 지역 내에서 연결된 공동체와 생태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 함께 연구하는 온오프라인 모임을 운영했다. 구례를 중심으로 매달 진행한 생태관찰 모임 ‘피비빗! 탐조클럽’과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드로잉 피크닉’, 책모임과 온라인 발제 모임을 열었다. ‘호이요’ 팀은 지원을 통해 본인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나눌 수 있는 웹사이트도 구축했다.

**팀별 활동 소개 ① 위드 We:D**

성인지교육

비상 월경대함 활성화

위드 여성 영화제

함께 가는 길

**YWCA에 바라는 점**  
 진해민 : YWCA와 같은 오래된 여성 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교내에서 시작한 작은 단체인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나갈지 고민이 될 때 YWCA의 활동을 참고하게 되고, 큰 버팀목 같이 힘이 되어준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다.

**여성활동가로서의 이후 목표는?**  
 이어진 : 위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다른 팀들과 연대하고, 숲나학교가 위치한 서초구를 비롯해 다른 지역까지 확장하고 싶다. 내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이어가고 싶고, 성평등을 위한 어떤 일들을 꾸리고 있을 것 같다.

**팀별 활동 소개 ② 초록놀이터**

‘철새야 놀자’ 어린이 생태캠ป์

유튜브 콘텐츠 운영


**YWCA에 바라는 점**  
 김신규 : 세상을 살리는 일은 인기가 없고, 불편하다. 피부로 와닿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다. 인기 없는 일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YWCA와 같은 후원이 굉장히 필요하다. 다른 지원사업들은 결과중심적이지만 YWCA의 후원은 밑빠진 독의 물붓기라고 생각되더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준다. 청년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이상하다는 시각보다는 그래도 믿어보자는 시각을 가져주시면 분명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곳곳에서 청년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성활동가로서의 이후 목표는?**  
 임예슬 : YWCA 덕분에 초록놀이터 영상 콘텐츠 시즌이 잘 마무리 됐다. 내년에는 생태교육뿐만 아니라 북 리뷰, 생태적 전환의 삶 브이로그 등의 콘텐츠도 업로드할 예정이다. 올해는 군산 지역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주로 했다면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어린이 생태캠ป์를 열어 활동을 확장하고 싶다. 생태적인 문제들이 어린이들에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생태, 환경에 대한 정책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 다양한 지역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어린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 최종공유회 개최

프로젝트 참가자들과 후원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최종공유회를 11월 23일(토) 한국YWCA연합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최종공유회에서는 팀별 보고를 통해 2024년 프로젝트 결과와 목표 달성률에 대해 공유하고, 후원자들과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 팀별 프로젝트 과정에 대한 스토리 전체를 아카이빙한 영상을 상영했다.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11월 19일 개최된 <제2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을 언급하며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로 인연이 된 참가자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끝으로 YWCA와의 인연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성장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YWCA 안에서 또 한번 만나기를 소망한다”며 “다음 젊은지도자상의 수상자가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격려했다. 초록놀이터 팀의 김신규 팀원은 “세상을 살리는 일은 불편하고 인기가 없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속담

처럼 우리의 활동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되더라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독에서 빠진 물이 땅으로 스며들고, 땅이 바뀔 것”이라며 “청년들의 활동이 못미덥고, 이상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믿고 후원해준다면 분명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YWCA의 후원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청년지원공모사업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2022년에는 13개 팀을, 2023년에는 여성청년활동가 2개 팀을, 2024년에는 여성청년활동가 3개 팀을 선발 지원했다.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는 100개의 팀을 지원할 때까지 계속 된다. 3년간의 아카이빙 영상은 YWCA KOREA 유튜브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년에도 여성청년활동가 지원은 계속된다. 여성청년활동가를 응원하는 모든 사람이 후원자가 되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청년활동가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모집 공고는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역과 함께 청주YWCA 여·세운동

+ 김가희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 여세가 열어가는 세상



### 불평등에 대한 저항, 여·세의 시작

여성이족부는 매해 발표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를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바꾸며 ‘여성’의 이름을 지웠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경제활동 참가율·고용률·임금 수준 등에서 남녀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

이렇듯 구조적 불평등이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청주YWCA는 2023년 여·세운동을 새롭게 시작했다. 여·세운동은 각자 다른 주제로 활동하는 ‘폴뿌리 소모임’들로 나뉘어 구성된다. 폴뿌리 운동은 기존의 틀과 구조를 뒤집고 개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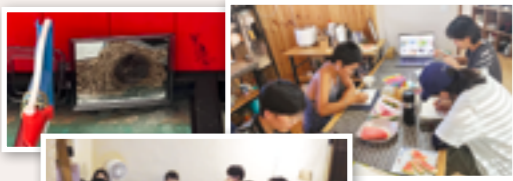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폴뿌리 소모임 역시 인식과 변화의 욕구를 가진 각각의 여성이 모여 소모임에서 집단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모임 안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와 열망을 발견하며 이렇게 모인 여성의 힘은 일상의 성불평등한 요소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소모임으로 나뉜 구성원들은 필요에 따라 다시 뭉쳐 목소리를 한 곳에 모아 운동을 만들어나가기도 한다. 이처럼 청주YWCA는 따로, 또 같이 ‘여성’이 만드는 건강한 세상’을 일구고 있다.

### 따로, 폴뿌리 소모임으로 나뉜다

2023년 14개로 시작된 청주YWCA의 여·세 소모임 조직은

### 팀별 활동 소개 ③

#### 컬렉티브 호이요



피비빔! 탐조클럽



온라인 모임

### YWCA에 바라는 점

젤리 : 평소 청년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청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고 회의감을 많이 가졌다. 청년이라는 말로 하나로 묶이기에는 각자의 고민이 너무 다르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들은 성과주의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고민을 꺼내놓기가 어렵다. 이번 프로젝트가 가장 좋았던 점은 개인적인 고민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믿어줬던 것이다.

봄 : 생태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개인의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 YWCA가 하는 사업들을 참고하면서 배우는 점도 많고, 안전한 조직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 여성활동가로서의 이후 목표는?

젤리 : 여성은 너무 큰 범주다.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가 가진 고민도 다양하다. 나와는 다른 고민을 가진 다양한 여성들과 연결되고 확장되는 경험을 하고 싶다.



① 탈핵으로 여성 소모임이 탈핵신문읽기 모임을 진행 중이다. ② 페미니즘으로 여성 소모임이 독서모임 하는 모습이다. ③ 환경으로 여성 소모임이 줍길을 실천하고 있다. ④ ⑤ 시민들을 대상으로 '질문하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현재 20개로 늘어났다. 모임의 구성원들도 다양해져서 고려인, 베트남, 일본인 등 이주여성 그룹, 농촌으로 이주한 여성들의 그룹, 시민들의 탈핵학습모임인 탈핵신문읽기 소모임도 추가됐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정도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소모임을 가진다. 10명의 구성원이 만들어가는 '폐친강친' 소모임은 '페미니즘 친구, 강사 친구'의 줄임말로, 성평등 관련 책을 읽고 성평등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들은 10월에 진행된 모임에서 「남성해방(앤스 판트리호트 저)을 읽고 모임을 진행했다. 모임에서 구성원들은 “우리 사회에 가부장제 문화와 젠더규범이 뿌리 깊다. 양성성을 외치며 남녀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 “성평등이 많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일상을 잘 관찰해 보면 건설현장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 등 여전히 불평등한 경우가 많다” 등의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들은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교육, 돌봄, 복지, 여성 분야의 성평등 정책을 제안하며 정기 모임이 외에도 실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또다른 소모임인 '화랑'은 베트남 이주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겪었던 가부장제 문화와 낯설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젠더 고정관념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특별히 지난 10월에는 남녀의 사회적 규범을 설정해 놓은 젠더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것이 차별 → 비난 →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일상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개선하려는 사례들을 통해 성평등한 일상의 중요함을 인지하고 그 일환으로 성평등 언어사전의 수록된 어휘들을 바꿔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각자 활발한 활동을 펼친 20개의 소모임들은 청주YWCA가 주관하는 성평등 반사회에 참석한다. 성평등

반사회에서는 각 소모임들이 다루거나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돌아가며 나누고 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 함께, 성평등 캠페인으로 연결되다

각자의 소모임으로 나누어 활동하는 구성원들은 캠페인을 통해 다시금 연결된다. '질문으로 캠페인하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여성인들이 모여 성평등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이들은 캠페인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 속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벗어나 사고의 틀을 확장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왜 여자 기숙사에 잠금 장치가 없지?", "왜 남편의 동생을 도련님이라고 불러야하지?" 등 분명 이상하지만 넘겨졌던 문제들에 물음표를 달아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불평등과 차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캠페인의 중심에는 여성 구성원들의 '수다'가 있다. 이들은 여성 모임의 과정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들을 곱씹

으며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의제들을 찾는다. 또한, 게릴라 캠페인으로 시민들을 만날 때에도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질문을 이끌어낸다. 결국 대화를 통해 쉽게 지나쳤던 문제의식을 상기시키고, 불편함을 인식하게 한다. 인터뷰에서 청주YWCA 이현주 부장은 “우리가 모임에서 나왔던 수다가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느꼈다”면서 “소모임을 통한 대화와 수다의 장이 확장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화가 시작되어야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이 있어야 문제를 의식하게 됨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수다에서 시작된 여성 모임은 개인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수다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러니 우리 주변 두, 세 명을 모아 작은 소모임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이를 통해 여성 모임이 청주YWCA를 넘어 우리사회에 전반에 정착하기를, 여성이 살맛나게 사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 활동 소감

#### 페미니즘으로 여성

##### 채린 님

혼자서 고민하던 문제들을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생각의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또한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나 넘겨졌던 부분은 서로 보완해주며 건강한 사고방식으로 이어졌어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교류하면서 지지하지 않고 함께 여성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나는 고려인이다

##### 류바 님

한국말을 잘 못해서 마음과 달리 한국인들과 같듯이 생길 때가 많았어요. 여성을 만나고부터는 그런 걱정 안하고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서 좋아요. 솔직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 길 위의 평화

##### SOONY 님

'길 위의 평화'는 책을 통해 북한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평화를 생각하는 소모임입니다. 소모임에 참가하면서 책을 정기적으로 읽게 되었어요. 또한,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고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임에서 서로 나누는 지지와 응원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 손으로 여성

##### 은희 님

서부복지관 식당봉사를 하면서 비건가족으로 가방을 완성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개인이 모여 크고 작은 성취를 만들어가니 뿌듯하기도 하고요. 내년에는 모자를 떠서 독거노인들에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 오늘 나는 배달앱을 지웁니다



한 택배사에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만 20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물류센터, 배송기사를 가리지 않고 사망자가 발생해왔고, 올해만 해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배달앱, 새벽배송, 빠른배송 등의 문제를 청년들과 함께 나눠봤다.

## 택배 노동자도 기후난민이다

우주: 장마, 폭염, 폭설 등 기후위기로 인해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있어.

달이: 명절, 기념일 등 물량폭증으로 인해 택배기사에게는 매일 매일이 전쟁이야.

은하: 올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습하고 더운 여름이었잖아.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고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무 환경을 점검했다.

우주: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껴가는 사업장이 너무 많다는 거야. 소규모 사업장들은 점검 대상이 아니거든.

은하: 여름에는 아이스팩으로, 겨울에는 핫팩 하나로 버티는 택배 노동자들도 기후위기의 치명타를 입고 있어.

달이: 택배나 배달은 지구에게도 민폐야. 내가 어릴 때는 치킨이랑 중국집만 배달이 됐어. 그때는 그릇도 중국집에서 그릇도 수거했었고.

우주: 맞아. 택배, 배달 서비스가 너무 일상화되면서 일회용품, 쓰레기 양이 너무 늘었어.

## 반복되는 죽음

우주: 2011년, 피자 30분 배달제 기억나? 따뜻한 피자를 먹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배달노동자들. 10년도 더 지난 지금에도 비슷한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은하: 이건 한국에만 있는 비극이야. ‘빨리 빨리’ 민족이

만들어낸 비극이지.

우주: 그러면서 이용자들은 배달노동은 노동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노동으로 인정되지만 그걸 옮겨주는 과정은 무료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

달이: 주변에서 배달비가 비싸져서 아깝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들의 노동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 돼.

은하: 나는 배달비가 아깝긴 해. 그래서 보통 포장해오거나 나가서 사먹는 걸 선택해. 만약 편리함을 누리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지.

우주: 그래.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해주는 배달에 정당한 값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다시 생각해볼게 된다.

달이: 배달 서비스가 낳은 사회적 문제가 너무 많다. 이번에도 역시 약자들이 고통받네.

우주: 편리한 서비스가 생겨날 때마다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너무 슬프다.

## 누구를 위한 서비스일까?

달이: 빠른 배송은 택배사 간의 경쟁 속도도 부추겨.

우주: 이제 일반 택배회사들도 내년부터 주 7일 배송을 선언했고, 공휴일에도 배송을 할 거래.

은하: 거의 노예계약이야. 나라나 기업에서 근무시간과 환

경을 정해 놓지 않으면 생계가 달린 사람들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어.

우주: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다른 동료 택배기사의 물량을 대신 배송해 달라는 업체 측 요청에 고인이 된 택배기사가 응답한 내용이야.

은하: 뉴스기사에서 ‘사회적 타살 시스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딱 맞다고 생각했어.

우주: 코로나 때는 택배물량이 급증해서 21명의 택배기사가 목숨을 잃었대.

은하: 문제는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택배물량은 줄지 않고, 택배 노동자의 사망률이 4배가 증가했다는 거야.

달이: 지금 시대에 과로사로 죽는 사람이 늘고 있는 직종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은하: 나의 편리함과 낮은 인내심은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야.

달이: 빠른 배달, 빠른 배송 시스템은 내가 돈을 냈으니 더 빨리, 더 편하게 누리고 싶은 나쁜 습관을 만들어 냈어.

우주: 인간뿐 아니라 지구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지. 빠른 배송시스템, 인간이 가진 탐욕의 집합체야.

##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수박: 은하: 행복하지 않은 나라, 자살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야.

우주: 최근에 <한국이 싫어서><sup>1</sup> 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너무 공감되더라.

달이: 사실 과로사로 죽어나간 노동자들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 그러나 회사도, 정부도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야.

우주: 이번 사태 역시 사과가 먼저야. 그러나 기업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회피만 하고 있어.

+++

<sup>1</sup> 한국의 소설가 장강명이 쓴 소설로 2015년에 민음사에서 출간했다. 2024년 고아성 주연의 영화로 개봉됐다.

은하: 그런 와중에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뽑고 있어.

달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해.

은하: 은폐된 노동 현장, 외국인 노동자일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 얼마 전에 태국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농장주가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밝혀졌어. 근데 받은 처벌이 고작 집행유예였어.

우주: 누군가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하는 일들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이 너무 슬프다.

##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것

달이: 노동자들의 죽음은 택배 노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발전소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당할 수도 있는 이야기야.

우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서비스, 깨끗한 공간, 시원하고, 따뜻하게 누린 모든 것들이 어찌면 그들의 희생으로 얻은 것일지 몰라.

은하: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 사람의 죽음도, 빈부격차도, 전쟁이나 기후위기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거야.

우주: 그래. 우리가 청년토크에서 나누는 모든 이슈의 원인은 결국 자본주의 때문이야.

달이: 사람 목숨이 돈보다 값이 싸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누가 지켜줄까?

# 죽음의 순간에 함께하는 강렬한 생의 감각

## 되살리고 기억해야 할 그들의 노래

### 죽음의 순간에 누가 옆에 있나

얼마 전 유명한 탤런트 김수미 씨의 갑작스런 죽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고생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 자는 동안 고요히 영면한 것을 부러워하기도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환자의 의사와 상관 없는 온갖 의료적 처치들이 행해지는 동안 겪는 환자들의 한없는 고통과 무력감, 그리고 고립감들을 도처에서 목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운이 좋게 가족이나 친구들이 임종의 순간을 함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제 환자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지 못하고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의료인의 돌봄을 받다 죽어간다. 하지만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죽은 지 한참 지나도록 방치된 채 발견되는 수많은 고독사, 무연사의 뉴스들도 이젠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이처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느끼는 현대사회 죽음의 풍경은 두렵고 차갑고 쓸쓸하기 그지없다.

올해 베니스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은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룸 넥스트 도어>는, 모든 이에게 두려움과 걱정으로 다가오는 현대사회의 죽음의 순간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여운이 남도록 강렬하고도 아름다운 영상으로 펼쳐낸다.

## 존엄을 지키며 죽는다는 것

자궁경부암으로 투병중인 주인공 마사(탈다 스윈튼)는 의사가 권하는 대로 열심히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암이 간과 뼈로 전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통스런 항암치료 과정을 중단하기로 한다. 마사가 암과 투병중이라는 소식을 베스트셀러인 작가 잉그리드(줄리안 무어)가 친구를 통해 우연히 전해 듣고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마사를 만나러 병원을 방문하면서 빠르게 강렬한 이야기가 스크린 속에 펼쳐진다. 침대에 누워있는 마사의 여인 얼굴을 하고 있지만 환자복을 입지 않고 빨간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친구를 맞이한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한때 같은 잡지사에서 일하며 절친한 사이였던 친구 잉그리드에게 마사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 “존엄을 지키며 죽고 싶다”고 말한다. 그 말은 곧 더 이상 고립된 채 병원에서 고통스런 의료적 처치를 계속 받지 않고 안락사를 선택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사의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더욱 놀라운 말을 한다. 다크웹에서 구한 알약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에 바로 옆방에 있어 달라고.

중군기자였던 마사의 지구 곳곳의 전장을 돌아다니느라 유일한 혈육이었던 딸의 성장 과정을 함께 하지 못했고 그래서 관계는 남보다 못할 정도로 소원하다. 엄마의 결정을 ‘당신의 선택’이라고 무심하게 말하는 딸은 죽음의 순간에 옆에 있어줄 존재가 되지 못하고, 대신 오랫동안 소원했지만 자신의 삶을 지지하며 신뢰를 쌓아온 친구에



게 엄청난 부탁을 한 것이다. 잉그리드는 마사의 부탁을 받고 처음엔 망설이지만 곧 수락하고 만다. 이쯤에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하게 된다. 나에게 이런 부탁을 들어줄 친구가 과연 있을 것인가.

## 망해가는 세상에서 말해지는 삶의 긍정

마사가 죽을 장소로 택한 곳은 오래 살던 자신의 집이 아니라 뉴욕 근교의 나무숲으로 둘러싸인 고급 별장이다. 통창으로 멋진 자연의 뷰가 펼쳐지고 에릭 호퍼의 그림이 걸려 있는 그곳에서 둘은 함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이곳에 온 주인공 마사와 잉그리드는 모두 강렬한 색의 옷을 입고 있다. 전한 연두와 빨강, 질푸른 파랑과 보라 등등. 죽음을 선택하고 기다리는 공간 또한 역설적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가득하고 숲 속의 나무들은 한껏 생명력을 뽐어댄다.

마사가 언제 죽음의 순간을 택할지 알 수가 없다. “방을 열어놓고 잘 건데 어느 날 단혀있으면 그 일이 일어난 거야”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마사 앞에서 잉그리드는 괴로워하지만 침착하게 이 과정에 참여하여 이후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비한다. 잉그리드는 이를 위해 마사의 전 애인이었고 한때 자신의 애인이기도 했던 데미언을 만나 도움을 청한다. 데미언은 기후위기의 심각함에 대해 강의


하며 다니지만 정작 “은 세상의 시인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시를 써 봤자 나무 한 그루도 구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비관론자며, 기후위기로 망해가는 세상에서 손자가 태어나는 것도 기뻐하지 못하는 냉소적인 사람이다. 그런 데미언에게 잉그리드는 보란 듯이 말한다. 마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도 지저귀는 새소리에 아름다움을 느끼고 매순간 삶을 즐기고 함께하고 있음을.

##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이 영화는 안락사가 중요한 소재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다. 영화 <룸 넥스트 도어>는 마사의 안락사를 선택을 옹고 그림의 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죽음을 택하는 마사의 치열하고 강렬한 과정을 따뜻한 우정과 오히려 삶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보여준다. 오래 만나지 않아도 믿음과 사랑으로 곁을 지켜준 친구 잉그리드와 생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삶을 긍정하는 마사.

실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소감에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은 “이 세상에 깨끗하고 품위 있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믿는다.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죽음이라는 주제가 영화 속에 확실하게 드러나지만, 침울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신 빛과 생명력이 충만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기어코 마사의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길로 떠난 후, 홀로 남은 별장으로 마사의 딸이 찾아온다. 엄마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서,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사람들은 매일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삶은 아름답고 모두는 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듯 잉그리드의 나레이션으로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속 문장이 읊조려진다.

“눈이 내린다. 네가 지쳐 누워있던 숲으로, 네 딸과 내 위로, 산 자와 죽은 자 위로.” 

# 회원YWCA 회원 담당실무활동가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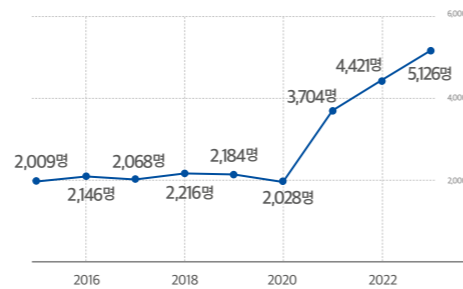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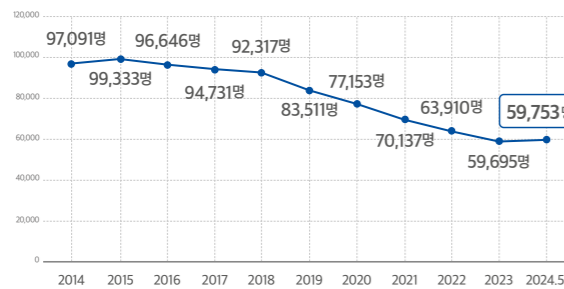
## 전국 회원수 39% 감소

YWCA 전국 회원수는 10년 사이 97,091명(2014년 말 기준)에서 59,753명(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약 39%가 감소하였다. 시민운동 조직의 확대로 전문성을 갖춘 지역 운동 조직의 출현과 가치에 기부하는 모금트렌드의 변화, YWCA 재구조화로 회원YWCA가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돌봄 사업 정비, 총회에 참석하는 정회원과 회원정비 등 예고된 회원수 감소도 있었다.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코로나19 팬데믹도 있었지만, YWCA 10만 회원의 시대는 이제 과거 일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현재의 회원수도 관리 여하에 따라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더이상 과거의 일의 감소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 YWCA 회원정책 연구모임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YWCA의 내외부 환경변화로 인해 전국 회원수가 점차 감소하게 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4-2025 한국YWCA 운영정책' 중 활동회원 5,000명을 시민활동가로 양성하는 중장기목표와 회원참여 확대의 세부과제(1. YWCA 회원정책 연구 및 수립, 2. YWCA



활동회원(정준회원, 청소년회원) 활동성 강화, 3. 회원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소모임 조직 활성화, 4. YWCA 후원회원 확보)들을 달성하기 위해 '2024-2025 YWCA 회원정책 연구모임'이 구성되었다. 회원조직활동 경험이 있는 회원YWCA 사무총장과 국장급 실무활동가, 연합회 이사로 구성된 8명의 위원이 분기별로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회원YWCA의 회원조직과 회원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YWCA 회원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주간(5.27~6.7) 전국 50개 회원YWCA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 회원담당 실무활동가 워크숍 개최 취지

지역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회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인 회원담당 실무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현황을 직시하고, 문제와 해결 방안을 나누고 네트워크와 연대할 모임이 필요했다. 그렇게 지난 9월 25일(수) 종일을 (사)서울YWCA 강당에 38개 회원YWCA 사무총장과 회원담당 실무활동가 72명(연합회 포함 총 85명)이 모이게 된 것이다.

## 온라인 회원 확대의 필요성 : 서울환경연합 사례

김은경 (사)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 YWCA 회원정책연구모임 위원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서울환경연합 이동이 사무처장의 온라인 회원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들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한국 본부인 환경연합은 51개 지역조직으로 3만 명의 후원회원으로 운영되

고 있는 NGO이다. 지역조직 중 하나인 서울환경연합은 2020년 회원수 2,028명에서 2023년 말 기준 5,126명으로 (YWCA와는 반대로 지역조직에서만) 약 39%의 회원수가 증가한 단체로 이 중 20대~40대의 비율이 약 65%를 차지한다. 이는 다이렉트 캠페인으로 온라인상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잠재후원자를 확보, 육성하며 후원자로 전환시키는 리드제너레이션 Lead Generation 방식을 선택했기에 가능했고, 다이렉트 캠페인에 참여하는 잠재후원자(Lead)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관리하여 (예측 가능한) 회원수 증가를 경험한 사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우리의 현재 : YWCA 회원조직 및 회원운영 현황

다음으로는 송록희 (사)한국YWCA연합회 지역협력교육국장이 'YWCA 회원조직 및 회원운영 현황조사' 설문조사 6개 영역(회원YWCA 기초현황, 회원, 회원활동성, 회비/후원금, 지역사회 인지도, 제안) 총 39개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했다. 현재의 우리의 현황을 숫자와 그래프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회원확대와 회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내부과제로 지역에 기반한 명확한 YWCA 목적 운동을 전개하고 운동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과 회원들이 원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제와 안정적인 본부 재정확보를 위한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을 수립하는 것,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여 모금(수익사업) 개발에 훈련하는 것, 그리고 회원관리 전문성 향상으로 기부자 예우프로그램 실행, 회원 커뮤니티 형성과 소통

회원참여 확대 세부과제 조별 시나리오 토의 결과(요약), 문제점 1, 2순위에 따른 해결방안

세부과제 1. 후원회원 및 기부금 확대 (4개 조 15개 Y 논의)		
문제점(순위별)	해결방안	걸림돌
① YWCA 홍보 부족	수익사업 발굴, 후원회원 모집, 중장기 재정 프로젝트 실행	재정부족 인력부족 YWCA 장점과 상징성, 전문성 부족
② YWCA 핵심운동의 모호	실문조사로 연령별, 대상별 욕구조사, 설문조사 통계로 매력적인 소모임을 기획, 회원들과 대면, 비대면 접촉 기회 강화	
세부과제 2. 회원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소모임 조직 활성화 (7개 조 23개 Y 논의)		
문제점(순위별)	해결방안	걸림돌
① 예산부족	정기적 뉴스레터 발행, 잠재후원자(lead)의 체계적 관리, 홍보비용 투자, 영상이나 굿즈 개발, YWCA 브랜딩	재정부족 인력부족 YWCA 장점과 상징성, 전문성 부족
② 회원에 대한 니즈 파악과 소통의 부족	지역특화운동 개발, 운동과 모금에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정	

강화에 대해 회원YWCA의 다양한 제안들을 확인하는 유의미한 결과 공유였다.

YWCA 회원조직 및 회원운영 현황조사 전체 결과 확인 : Y-NET → 자료실 → 사무총장 커뮤니티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 시나리오 토의

참석한 회원YWCA를 회원수와 실무활동가수 규모별로 3, 4개 Y씩 묶어 조를 구성하였다. 조별로 2024-2025 회원참여 확대 3가지 세부과제 중 1개의 과제를 선택하여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찾은 해결방안에 걸림돌(장애요인)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순서로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시나리오 토의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다. 논의된 세부 과제들의 공통 문제점으로 '전담인력 부족'이 최다 거론되었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는 전문성 있는 자원봉사자와 재원 개발, 모금 외주, YWCA 목적과 정체성(사명감)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해결방안에 걸림돌(장애요인)의 공통은 피비우스의 띠처럼 항상 거론되는 재정과 인력의 부족, YWCA의 장점과 상징성 그리고 전문성의 부재가 나왔다.

'이번 워크숍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실무활동가들이 참여한 것'을 보고 '고립되어있던 섬에서 동료들을 만

나 같은 고민을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이었고 '동역자들을 만나 에너지가 모이는 시간'이었지만, '지역과 회원 YWCA별 생각의 차이'도 느끼며 '이제는 과감하게 지역에서 매력적이고 특화된 운동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커다란 과제 속에서 무력함보다는 '함께 하니 할 수 있고, 하면 되지' 라는 희망을 얻어가는 자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참가자 피드백 중)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엔 신문을 들여야 한다.'라는 칼 바르트의 명언처럼 YWCA 목적과 정체성인 본연의 가치를 깊이 내면화하여, 하나님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을 이 시대의 언어와 방식으로, 이제는 '내용'에 '멋'을 더해 기술적으로 회원들을 부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YWCA 회원들이 지역 시민운동의 주체가 되어 YWCA의 비전이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운동과 활동가들의 역량이 더 강화되어 풍성한 회원의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며 YWCA 회원정책 연구모임에서는 계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회원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할 것이다. 

회원담당 실무활동가 워크숍 전체자료 확인



2024년 제2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



2024년 제2차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8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전라제주권역협의회 주관으로 캔싱턴리조트서귀포와 제주일대에서 진행됐다. 전라제주권역 사무총장들의 환영과 여는예배를 시작으로 표경흠 비영리컨설팅 웰컴 대표의 '비영리기관 조직문화 진단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에 대한 강연을 듣고 별빈 척도를 활용해 조직 관계유형 등을 자가진단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4 회원조직 및 회원운영 현황조사 분석결과'로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운동강화 57개년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전국사무총장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역운동 강화를 위한 계획이 각 단위에서 잘 수립되어 시대의 부름에 합당한 정의, 평화, 생명운동을 활기차게 펼치는 YWCA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9-10월 월례아침기도회



월례아침기도회가 9월 2일(월)과 10월 7일(월) 오전 9시 연합회 A스페이스와 온라인 줌에서 전국 24개 회원YWCA 총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9월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다양한 사회와 교회 현장을 섬기면서 돌봄과 연대를 위해 활동하고 계신 황보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2-17절 말씀을 바탕으로 '나의 선생님, 나의 본(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참석자들은 기후 재난과 중동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또한, 10월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여교역자들의 목회 지원과 연합을 위해 사역하고 계신 김은정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장 1-10절 말씀을 바탕으로 '누이여, 나의 누이여'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청년'은 성별 구별이나 차별이 없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새로운 길을 가리키는 존재이며,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역자가 되어야 함을 설교했다. (말씀묵상은 3쪽)

독일 사례로 보는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간담회 개최



'독일 사례로 보는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간담회'가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의 개회인사로 시작됐다. 핵발전 진흥책으로 좀처럼 늘고 있지 않은 재생에너지를 시민주도로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탈핵 후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향해가고 있는 독일의 베를린 환경부 기후보호국 건물/도시계획 문기덕 담당관이 사례발표를 맡았다. 문기덕 담당관은 "독일에서는 시민주도로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로 이를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강조했다. 이어진 전체토론 순서에서는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이 오갔다. 특별히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핵이 아니라 자신이 쓸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베란다 태양광 등 개인적인 실천이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탈핵기후생명 도합별 워크숍



2024-2025 중점운동인 탈핵기후생명 운동을 지역의 목소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도별 운동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광역시도협의회 탈핵기후생명 워크숍'이 진행됐다. 본 워크숍은 각 협의회에서 운동주제를 직접 선정하고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해 지역이 따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확대하도록 하는 연합회의 지원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협의회는 전북, 제주, 충남, 충북도협의회로 각각 '시민참여형 자원순환운동', '제주지역 에너지 전환운동',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방사성 오염수와 탈핵'을 주제로 진행됐다. 올해 모든 협의회의 탈핵기후생명 워크숍이 마무리됐으며, 각 워크숍의 내용은 12월에 열리는 제 5차 탈핵기후생명 실무활동가 온라인 워크숍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2024 찾아가는 회원Y 이사교육 (사)평택YWCA



'2024 찾아가는 회원Y 이사교육'이 (사)평택YWCA에서 9월 10일(화) 다섯 번째 순서로 진행됐다. 평택Y 이사, 실무활동가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의 '비영리 거버넌스와 평택YWCA 이사(회)의 역할'과 이숙진 이화여대 강사의 'YWCA 목적과 정체성'을 주제로 한 강의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비영리 법인의 책무성과 YWCA 목적과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더욱 자부심을 갖고 이사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나눴다.

2024 찾아가는 회원Y 이사교육 (사)여수YWCA



2024년 신설된 <2024 찾아가는 회원Y 이사교육>이 올해 마지막으로 (사)여수YWCA에서 10월 8일(화) 진행됐다. 여수Y 이사, 실무활동가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영리 거버넌스와 여수YWCA 이사(회)의 역할'과 '(사)여수YWCA 정관 및 제 규정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YWC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나눴다. 한편 <2024 찾아가는 회원Y 이사교육>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건강하고 투명한 기독교 시민운동단체로서의 YWCA 조직운영비전 실현을 위한 회원Y 맞춤형 교육으로, 올해 익산, 수원, 강릉, 남원, 평택, 여수에서 실시됐다.

YWCA생명비전연구위원회 중간보고회

YWCA생명비전연구위원회는 9월 28일(토) 한국YWCA연합회와 온라인에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올해 진행되는 세 연구, 'YWCA 지역운동의 역량과 지속가능성 연구', '청소년



년 주도의 탈핵기후생명운동 연구, '아시아 3개국 여성 청년의 SNS 사용과 안녕감 및 취업 준비 활동 연구의 연구 모델'의 설문조사 진행 및 분석 과정을 공유했다. YWCA생명비전연구는 관심 있는 분야에 지원하여 자원봉사로 연구에 함께하는 10명의 연구위원과 19명의 연구원이 직접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주도의 탈핵기후생명운동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연구원은 본인이 제안한 내용이 연구에 실제로 반영되는 과정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느꼈고 청소년이 연구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더 필요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제3, 4차 탈핵기후생명 실무활동가 온라인 워크숍



중점운동의 주요 이슈에 대해 배우고 논의하는 '탈핵기후생명 실무활동가 온라인 워크숍'이 총 33개 회원YWCA(고양, 광양, 광주, 군산, 김해, 논산, 대구, 대전, 동해, 목포, 부산, 부천, 서귀포, 서울, 세종, 속초, 수원, 순천, 안산, 여수, 울산, 원주, 의정부, 익산, 인천, 전주, 제주, 제천, 진주, 진해, 창원, 청주, 충주)의 참여로 진행 중이다. 본 워크숍은 총 5차로 계획되어, 현재 4차 워크숍까지 마무리됐다. 8월의 주제는 '시민참여형 자원순환운동'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플라스틱 방앗간 등 사례 중심의 발표로 이어졌다. 10월의 주제는 '1.5도 라이프 스타일'로 녹색전환연구소 이우진 소장의 강의와 함께 직접 자신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는 소그룹 토론 시간으로 구성됐다. 올해 마지막 워크숍은 12월 13일(금) 오후 2시 온라인 줌(ZOOM)에서 진행된다.

2024 한국YWCA 확대정책협의회



10월 22일(화)부터 23일(수)까지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전국 50개 회원YWCA 회장, 부회장 및 활동가들과 연합회 이사 및 실무활동가 등 총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 한국YWCA 확대정책협의회(이하 확대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확대정책협의회는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한국YWCA 정책의 목적, 방향,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운동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여 YWCA의 지속적인 실천 과제를 찾는 한편,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나누며 회원 간의 유대와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주제 강연'과 'Y-대담', '기후위기 체험부스' 35세 이하 청년회원과 활동가들이 참여한 '청년의밤', 5가지 주제의 '분과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만남과 공론의 장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4쪽)

복지사업단 YWCA은학의집 연구구역 사업 결과보고회



YWCA복지사업단 '2024 YWCA 은학의집 시니어주택 개발 운영 전략 수립 연구구역 사업 최종보고회'가 10월 28일(월)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YWCA복지사업단 핵심관계자 및 연구 사업을 진행한 주석회사 더함에스디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YWCA 은학의집 시니어주택 개발 연구는 약 4개월 동안(노인) 복지 분야, 부동산 개발 분야, 비즈니스 전략 부문, 법률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그룹으로 연구진이 구성되어 YWCA 은학의집 부지를 활용한 노인복지주택 전환의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시니어 비즈니스 전략 도출에 대해 진행했다. YWCA복지사업단은 앞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YWCA 은학의집 운영 방향을 단계별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YWCA 기지개 캠프



싱크머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립은둔청년들의 금융역량 강화와 정서지원을 위한 'YWCA 기지개캠프'를 도봉숲속마을에서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서울에서 고립은둔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청년기지개센터와 협력해 2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10월 30일(수), 11월 6일(수)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1기 프로그램은 '나만의 금융가치관 정립'을 주제로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목표에 맞는 건강한 금융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2기 프로그램은 '2030 자산관리'를 주제로 오랜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과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금융교육 외에도, 청년들의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잉블 명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해소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캠프에 참여했다.

제2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11월 19일(화) 오후 2시, 폐이저명동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제2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열렸다. 제22회 한국여성지도자상은 한국과학기술센터허신센터의 이혜숙 소장에게 대상,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추혜인 원장에게 젊은지도자상을 수여했다. 특별히 제22회 시상식에서는 '미래를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토크세션이 진행됐다.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토크세션에서 수상자들은 이 길을 걷게 된 계기와 고민, 그리고 후배 여성 리더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진솔하게 전했다. 토크세션은 여성 리더십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자세한 내용은 34쪽)

2024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최종공유회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된 청년지원공모사업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가 2024년에도 3팀의 여성청년활동가들과 함께 했다. 프로젝트 참가자들과 후원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최종공유회를 11월 23일(토) 한국YWCA연합회에서 개최했다. 연합회는 여성 활동가로서 주체성과 비전을 가진 후보자를 모색했고, 1차 서류심사 28개팀 중 최종적으로 워드, 초록놀이터, 호이요팀 3팀이 선정됐다. 이날 최종공유회에서는 각 팀별 프로젝트 과정에 대한 아카이빙 영상을 상영하며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하고 후원자들과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36쪽)

연합회 연대소식

90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8월 8일(목) 세종문화회관에서 90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이 열렸다. 선포식에서 김은정 907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기후문제를 블랙홀처럼 삼키고 있다. 평등하고 안전한 주거정책도, 체계적인 재난예방 대책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향적인 로드맵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어떤 시도도 찾아볼 수 없다”며 “기후위기를 가중시켜 온 대기업 자본과 이를 편드는 기후악당 권력에 맞서 다가오는 9월 7일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고 나섰다”고 907 기후정의행진의 의미를 밝혔다. 90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참가자들은 선포식을 마친 후 서울 시내 곳곳에 907 기후정의행진 포스터를 부착하는 행동을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23쪽)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 의료정책토론회



한국YWCA연합회는 8월 9일(금) 열린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연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수가체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세부적이고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여한 조은영 회장은 “시민단체 입장에서 만에 하나 의료기관 간 공유된 정보가 보험회사나 기타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잘못 사용할 것을 걱정한다”라며, “환자 진료를 위해서 공공의 서비스 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사용된다면 적극 찬성하지만 안전하지 못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 기도주일 예배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라는 목적 아래 진행된 남북공동 기도주일 예배는 전 세계교회가 8.15 직전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예배는 김진수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 총무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훈삼 주민교회 담임목사가 ‘터져버린 울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다. 이훈삼 목사는 예서와 아곱의 화해를 통해 세계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평화의 빛을 지고 있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평화의 도리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감사와 응답의 시간으로 고마움 한국YWCA연합회 간사가 2024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을 낭독했다. 이후에는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의 파송사 및 파송 찬송으로 예배를 마무리했으며, 예배 참여자

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기로 다짐했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 중단 촉구 기자회견



8월 19일(월)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위기를 관리할 최소한의 소통 채널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이 발언으로 함께했다. 최 국장은 “전쟁연습은, 결코 전쟁을 예방하지 못하며, 오히려 전쟁을 불러온다”고 밝히며, “폭력적인 군사훈련에 사용되는 천문학적인 비용들이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복지과 돌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득 없고 무의미한 군사훈련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8월 21일(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와 한국YWCA연합회 및 12개의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유통정책 및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영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혜민 지속가능국민법상

포럼 부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YWCA연합회 조은영 회장이 인사말로 함께 했다. 토론에서 안정희 부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유통개선 방향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을 마치면서 안정희 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마무리했다.

의료소비자가 제안하는 의료개혁 국회토론회



한국YWCA연합회는 8월 23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소비자가 제안하는 의료개혁 국회토론회'를 김선민 의원, 이수진 의원, 전진숙 의원, 용혜인 의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한가정의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주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는 정부-의료계-소비자 각 주체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모두 함께, [ ] 변화를 향해'라는 주제로 주제 간 건설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함을 전했다. 이날 참석한 의료계, 정부는 "오늘처럼 소비자단체가 여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의 장에 계속 참여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

2024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



2024년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2대 국회, 소비자권 확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라'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12개 회원 소비자단체의 회원 400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는 물가안정, 의료개혁, 기후위기

와 지속가능한 사회,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확보, 소비자 안전 등 다섯 가지 분야의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운동 방향을 설정하고 22대 국회에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제안했다.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응하는 긴급집회



9월 6일(금) 보신각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라는 주제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응하는 긴급집회에 공동 주최로 참석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는 개인 SNS 속 불법영상물을 생성 및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한국사회의 큰 충격을 줬다. 한국사회는 이번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했고 여성폭력을 방치하는 국가의 책임을 묻는 1,2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함께 목소리를 냈다. 한국YWCA연합회도 이와 관련하여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TF팀을 구성해 교육자료를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다.

### 907 기후정의행진



9월 7일(토)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열린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기후 재난이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15개 회원YWCA를 비롯해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행진에 앞서 여는 발언이 있었고 이어지는 행진은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진행됐다. 그리고 행진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전체 참가자가 함께 디자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907 기후정의행진은 본집회·행진 외에

도 다양한 부대행사와 퍼포먼스를 통해 요구사항을 표현했다. 한국YWCA연합회 Y-틴 청소년들은 행사 당일 부스를 운영해 기후소원팔찌 만들기 및 미션빙고 활동을 진행했다. 또, 서울YWCA에서는 지난 9월 5일 기후정의 스크린&마이크의 일환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비건 식탁' 상영회를 진행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23쪽)

### 기후시민프로젝트-계통문제 및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도입방안 세미나



한국YWCA연합회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풀씨행동연구소 등의 연대단체로 꾸러진 기후시민프로젝트는 9월 9일(월) 오후 한국YWCA연합회에서 계통문제 및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윤성에너지와 공간 대표가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와 공간'을 주제로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개발은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하나 개발사업이기도 하기에 계획입지가 더욱 필요함을 발표했다. 이어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를 통한 환경영향완화주제를 발표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성 및 사회성을 확보한 최적의 입지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제시했다. 발제이후 연대단체들은 관련 내용에 대한 토의를 통해 전략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 관련 한국교회 긴급토론회



9월 19일(목)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 관련 한국교회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다. 최순양 이화여대 박사와 전수연 공익법센터 어빌 변호사가 토론했으며, 나눔과 제언으로 최수산나 한국YWCA 국장과 이은재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팀장, 이상철 NCKK 인권센터 간사가 이야기를 나눴다. 최순양 박사는 기독교관점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

안했고 전수연 변호사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범죄 영역 및 피해대상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현행법도 개선돼야 한다고 방안들을 제시했다.

### 월성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10년 대회



천막농성 10년 대회가 9월 21일(토) 월성 핵발전소 인근 솔밭에서 울산YWCA 및 연합회를 비롯해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대비 속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히 경주시민 12명이 창작한 칸타스타리아 '이주대책위 10년을 말하다'가 진행됐다. 10장의 대형 그림에는 월성1호기 폐쇄 투쟁, 갑상선암 소송, 광화문 100만 촛불집회 연설, 문재인 대통령의 농성장 방문, 청와대앞 1인 시위, 국회의원들의 이주법안 발의, 영화 월성 개봉, '원전 마을' 출간, 종교계의 연대 장면이 다양한 화법으로 담겼다. 본 집회 이후 천막 농성장으로 자리를 옮겨, 매주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끝냈던 상어를 함께 끌고 월성핵발전소까지 상어행진을 이어갔다. (자세한 내용은 31쪽)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100주년 국제 컨퍼런스 및 기념예배



한국YWCA와 함께 에큐메니컬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9월 20일(금)부터 21일(토)까지 100주년 국제컨퍼런스를 진행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세계교회들과 함께 걸어온 지난 에큐메니컬 여정을 돌아보고 도산소 프로세스와 한반도 에큐메니컬 포럼의 방향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22일(일)에는 '감사, 다시 하나 됨'을 주제로 한 창립 100주년 기념예배가 연동교회에서 열렸고, 9개 NCKK 회원교단과 5개 연합기관 관계자, 그리고 세계교회 에큐메니컬 파트너들, 지역, 여성, 청년,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사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7백여 명이 참석했다. 100주년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언문은 9월 23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 한반도에큐메니컬포럼



9월 23일(월)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한반도에큐메니컬 포럼(EFK)이 진행됐다. 포럼은 피터 프루브 EFK 의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 향후 남북 관계 전망과 당부'와 '현 대북 민간교류 현황과 변화된 역할'을 주제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전 국립외교원장)과 우리민중서로돕기운동본부 이예정 국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진행했다. 이예정 국장은 "소극적인 태도로는 더 이상 평화를 구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함께 해달라"며 협력을 촉구했다. 제리 필레이 WCC 총무는 "세계교회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대하고 있다"며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함께하자"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전 세계 교회와 에큐메니컬 공동체의 연대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



한국YWCA연합회는 9월 24일(화)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현재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대변화를 반영한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됐다. 특별히 한국YWCA 재구조화 과정의 실제적인 비영리법인의 분할·설립의 현장사례를 통해 나타난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공유하고자 한국YWCA연합회에서도 토론으로 참여했다. 또한 한국YWCA 재구조화 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희숙 한국YWCA연합회 이사와 한국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인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 이사가 각계 전문가로서 발제와 토론을 맡았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공청회



정부세종청사 12동 앞에서 '영터리 수요전망, 핵발전과 송전탑 건설 부추기는 11차 전기본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기자회견은 당일 10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1차 전기본 전면 폐기를 요구하면서 탈핵과 탈석탄, 공공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감한 에너지수요 및 소비 감축을 통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 현장에서는 공청회 참가자들의 전력계획 백지화 요구들이 있었으나 전원 연행되어 17명이 세종 남부서와 북부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모금 현황(농협 301-0193-6894-41) 2024.11.~2024.11.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규희 강주영 고마음 박수현 구정혜 김민호 김미경 김미애 김민승 김민주 김소영 김수진 김승아 김양선 김연희 김은경 김인호 김정김종희 김지숙 김지영 나길선 나연정 돌람수렌 박동순 박명숙 박윤애 박은실 박희경 반혜영 배정미 서해원 손지수 송록희 송선경 안수진 안정희 엄태문 유성희 윤수정 이명신 이미영 이신선 이예림 이은영 이은혜 이주영 이지현 이한빛 이행정 이혜정 이희정 이희숙 임원선 임진영 장승호 장형미 정서연 정석민 조영민 조은영 조은지 최선화 최수산나 최유주 최현자 홍수진 황지영	8,457,920
기업·단체	(주)럭스나인 (사)목포YWCA (사)전주YWCA	2,340,000
합계		10,797,920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모금(농협 301-0212-03441-71) 2024.11.8~2024.11.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구정혜 김가희 김병찬 김서연 김수아 김은경 김연희 김재연 김진용 김혜연 남궁혜경 송록희 박동순 박은실 박진화 반영하 반혜영 서해원 신인숙 원영희 안정희 유은비 윤수정 이예린 이은영 이재경 이주영 이혜련 이희정 임진영 정서연 조은영 최수산나 함희경 홍수진 홍현정 한영수	1,600,000
기업·단체	(주)대상	1,000,000
합계		2,600,000

YWCA 1922 장학금(농협 301-1922-0000-31) 2024.11.~2024.11.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고이나 구정혜 권부남 김동경 김미애 김병찬 김성이 김숙 김숙례 김은경 김형남 남궁혜경 돌람수렌 박동순 박은실 박진화 박현숙 배정미 백미순 백윤미 서해원 송록희 신성규 오대근 유미화 유은비 이규숙 이상우 이은영 이주영 이행정 이혜련 임진영 원영희 정서연 정현주 조경희 조은영 조한울 차민규 차선진 최수산나 최은영 최현자 하은진 함희경 홍수진 홍유미 홍인숙	6,620,000
단체	김해YWCA 서울YWCA 수원YWCA 순천YWCA 제천YWCA 진해YWCA 창원YWCA 홀플러스(주)	3,615,000
합계		10,235,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농협 301-0161-5540-11) 2024.11.~2024.11.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승아 강현종 고세영 광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김가현 김근혜 김기동 김대식 김명희 김병호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나척드르즈돌람수렌 남궁혜경남희숙 문미란 문병식 문상순 문인숙 민선영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지영 박진화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을 백혜진 송록희 송인호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양영심 엄세현 오시향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수 윤명선 윤수정 이민정 이연규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은 이찬진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장세영 전정미 정경란 정동진 정서연 정지유 정현중 조성애 조승환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재애 최수산나 최지영 하만성 하은경 하지원 한영수 홍기자	12,870,000
단체	(사)대전YWCA (사)목포YWCA (사)부산YWCA	1,349,900
합계		14,219,900

경인·강원권역

(사)강릉YWCA

문혜련 간사

2024 (사)강릉YWCA 민들레 일일차집



강릉YWCA 민들레 일일차집이 10월 11일(금) 강릉중앙감리교회 길 카페에서 열렸다. 이번 일일차집에서는 EM환경제품, 먹거리와 생필품, 사랑의 붕어빵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했고 이곳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여성과 청소년, 지역사회를 위한 목적사업과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매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전량 다화용기를 사용해 일회용품 쓰레기를 최소화 하는 노력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었다.

(사)동해YWCA

정미숙 팀장

은마를 배움터(실버레크레이션·실버체조)수업 프로그램



(사)동해YWCA는 5월 24일(금) 오후 2시 동해문화원 2층 대강당에서 이사, 위원, 실무자 포함 동해시민과 함께하는 차대 인식 개선과 동해YWCA는 실버인지능력지도사 수강생들의 심화 수업으로 실버레크레이션·실버체조 수업을 총 13회차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현재 7회차 진행중이다. 실버체조와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신체 활동을 촉진하며,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만성 질환 예방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더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2024 서울YWCA 특별후원음악회



서울YWCA는 10월 19일(토) '나눔으로 내일을 비춥니다'라는 주제로 특별후원음악회를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열었다. 올해는 김용배 교수(전 예술의전당 사장)가 이끄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회'로, K-클래식을 이끄는 열네 명의 연주자가 재능 나눔에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감각적인 레퍼토리와 최고 기량의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빛어내는 환상의 하모니는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한 차원 높은 예술의 감동을 선물했다.

(사)속초YWCA

주미란 간사

2024 속초YWCA 바자회 만나다 '만남과 나눔을 잇는 다리'



10월 12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양감리교회에서 '만나다(만남과 나눔을 잇는 다리)'란 주제로 2024 속초YWCA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청소년 운동, 기후정의 환경운동, 성평등운동 등 속초YWCA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진행했다. 바자회에서 업체에서 후원해 주신 물품과 개인적으로 후원한 생활용품, 친환경 EM 제품, 채소, 건어물, 것갈, 지역 특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고 비닐봉지가 아닌 쇼핑백 재활용과 장바구니를 사용했다. 물품 기증과 재사용을 통해서 속초YWCA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정의 환경운동에 회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 진행한 뜻깊은 행사였다. 이날 수익금은 속초YWCA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될 것이다.

**(사)인천YWCA**

서예스더 간사

**2024년 합리적 소비 인식 확산을 위한 소비자교육센터 운영**

인천YWCA는 인천시와 함께하는 소비자권익증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합리적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소비자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YWCA 소비자교육센터는 지난 6월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대 대상으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전자상거래, 생활안전, 지속가능한 소비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교육은 11월까지 총 400회 가 예정되어 있다.

**(사)춘천YWCA**

이지연 간사

**춘천지역 하천 보호를 위한 EM 흙공던지기**

8월 28일(수) 오후 2시, 공지천 하천살리기 및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춘천시민들과 함께하는 흙공던지기 행사'를 15명의 수강생과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들과 함께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춘천시 시민주도환경운동지원사업으로 '맑은봄내EM교육 및 보급사업' 활동 중 환경개선을 위한 EM교육 및 보급이 7주 동안 이루어졌으며 흙공을 만들어 발효시키고 투하하는 과정까지 수질정화에 직접 참여하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 EM전문강사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교육생이 수료에서 더 나아가 EM 환경 전문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권역****(사)고양YWCA**

김수현 간사

**너와나의 공유옷장 '21%의류교환파티'**

고양YWCA는 9월 20일(금) '21%의류교환파티'를 개최했다. 가을 겨울옷의 교환을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을 포함해 60여 명이 참여했고 총 270여 벌의 옷과 소품이 교환됐다. 이번까지 네 차례 열린 '21%의류교환파티'는 지역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교환되는 옷의 질도 좋아졌을 뿐 아니라, 의류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행동하는 기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자신이 고른 옷을 입고 장소 중앙을 걷는 '미니 패션쇼'도 진행해 참여한 시민들이 더욱 즐겁게 환경운동을 실천할 수 있었다. 기후위기나 의류쓰레기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이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장인 '21%의류교환파티'는 내년에도 이어질 계획이다.

**(사)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딥페이크 범죄 실태조사 및 사후조치 촉구를 위한 남양주시여성단체, 학부모 기자회견**

남양주YWCA는 9월 6일(금) 구리남양주교육청 앞에서 남양주시 여성단체와 학부모 대표들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 실태조사 및 사후 조치 계획 촉구'를 위한 남양주시 여성단체와 학부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각 여성단체의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발언문을 발표하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학교별 실태 파악과 업종 대응 및 가해자 사후조치에 대한 계획을 즉시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요청, 기자회견 이후 교육청 담당자들과 회의했다. 또한, 남양주시 피해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사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

지면서 마무리했다. 남양주시 여성단체와 학부모들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불안한 일상이 아닌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연대하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

**(사)부천YWCA**

박보근 간사

**2024년 부천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평등 점핑UP' 시민대화테이블**

2024년 9월 3일(화) 29번째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주최한 부천시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평등 점핑UP'에서 9개 여성기관 단체들과 함께, 성평등과 관련된 14개의 주제로 시민대화 테이블을 운영했다. 시민대화 테이블은 시민들이 함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부천YWCA의 시민대화테이블에서는 '배움의 발견(배움이 자유가 되기까지), 그리고 '여성 건강 특, 특, 특(여성호르몬과 통증, 건강한 도시와 여성의 이야기)'라는 2가지의 주제를 다뤘다. 배움의 발견에서는 배움을 통한 여성의 자유를, 그리고 여성 건강 특, 특, 특에서는 여성 건강권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사)성남YWCA**

이현주 간사

**'성남시소비자단체협의회' 창립**

성남YWCA는 9월 3일(화)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성남시소비자단체협의회' 창립총회 및 발족식을 진행했다. 협의회는 "소비자의 건전하고도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운동을 하는 단체를 결함,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원 단체 간의 화합과 발전을 통해 성남시 소비자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을 목

적으로 한다"고 제4조 목적에 명시했다. 이날 성남YWCA와 성남녹생소비자연대, 성남소비자시민모임이 함께했으며 창립총회에 이어 주제발표까지 진행하며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사)수원YWCA**

이민정 간사

**55주년 기념 일일 후원밥상 개최**

수원YWCA가 55주년을 기념해 일일 후원밥상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0월 17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에 위치한 대한성공회 수원교회에서 열렸다.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후원밥상은 수원YWCA의 오랜 사회적 활동을 기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나눔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참여자들은 맛있는 식사와 함께 수원YWCA의 55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사)안산YWCA**

홍지연 간사

**안산YWCA 회원한마음대회 '시화호를 걸어요!'**

9월 26일(토) 오전 10시, 안산YWCA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안산YWCA 회원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원한마음대회는 시화호 조성 30년을 맞아, 회원들과 함께 시화호를 걸으면서 시화호의 역사와 생태에 대한 전문가 해설을 들었다. 시화호조제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면서 만들어진 시화호는 완공과 함께 오염이 시작돼 '죽음의 호수'라고 불리며 수질오염이 심각했었다. 이후 시민들과 환경단체 등에서 시화호 지키기 운동을 벌여오면서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회복됐다. 시화호 건기 생태탐방을 통해 시화호 30년 역사를 돌아보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회원들과 시화호 주변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도 함께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김은정 간사

2024 안양YWCA 큰장날



10월 8일(화) 호계동 안양YWCA 회관에서 YWCA목적운동 전제 기념 마련을 위한 '2024 안양YWCA큰장날'을 진행했다. 1층 회관 앞 주차장에서 아나바다 및 물품판매를 2층 본부 사무실과 강의실에서는 우동, 떡볶이, 김치전, 김밥 등 먹거리를 판매했다. 이사, 실무자, 활동가, 봉사자, 센터수강생, 유관기관 및 주변 주민 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준비한 물품과 음식을 구매하며 YWCA운동에 함께하느라 시간을 가졌다.

(사)파주YWCA

김래정 간사

시니어인지강사 양성



10월 12일(토) 시니어인지강사 2급 자격증 취득자 20명을 대상으로 시니어인지강사 1급 실전과정을 실시했다. 2024년 하반기에 시니어인지강사 2급 자격과정을 4차례 실시했었고, 이번 1급 실전과정은 2번째 진행했다.

대부분 교육생들은 치매가 어떤 것이 정확히 알고 자기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봉사의 기회를 갖고자 참여했다. 특히, 찾아가는 경로당(노안정) 치매예방 봉사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비교적 많이 참여했다. 파주YWCA는 향후 치매예방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시니어인지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기적 연구모임도 가질 예정이다.

(사)평택YWCA

손혜민 간사

용기내! 평택 Y-틴

8월 9일(금) 8시 평택 Y-틴은 기후 환경 프로그램인 '신나는 에코투



어에 참가하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와 월드컵공원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한 뒤, 용기내챌린지를 직접 실천하기 위해 망원시장을 찾았다. 청소년들은 보고, 듣고, 실천하는 견학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알아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갔다. 특히 망원시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집에서 직접 가져온 용기를 사용하여 가게에서 음식을 포장했다. Y-틴 청소년은 "견학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고, 환경보호에 더욱 힘써야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평택YWCA는 평택시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인 '청소년이 키워가는 평화활동'을 통해 청소년들과 함께 그린 밭고, 지구를 위한 습관 바꾸기, 5R 줄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천해 왔으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하남YWCA

김상미 간사

자원순환의 날 행사



하남YWCA는 지난 9월 6일(금) 하남시 지역 내 6개 기관이 연합한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주관하고 하남YWCA 주최했으며, 총 6개 기관이 참여했다. 친환경 모기퇴치제 만들기, 아나바다 장터, 기후위기 미션링고, 커피박 향초 만들기, 페트병 화분 만들기, 우유/테트라팩 휴지 교환, 태양광 충전소, SNS 인증샷 이벤트, 바다유리 공예, 거리캠페인 등 지구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하남YWCA 이강숙 회장은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통해 환경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 환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김난영 간사

논산시 복지박람회 '지구를 구하는 일상 속 분리배출'



논산YWCA는 제9회 논산시 복지박람회(부제:탄소발자국 줄이기)에 '지구를 구하는 일상 속 분리배출' 주제로 9월 3일(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체험부스 운영을 진행했다. 40여 개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시설·단체가 참여하여 홍보 및 체험과 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논산YWCA는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앙케이트판 스티커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조사, 롤렛 돌림판을 돌려서 나온 품목을 직접 분리배출하며 일상 속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실천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부스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탄소중립과 RE100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동안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분리배출법을 익히며 생활 속 실천으로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금강, 대청호 혼자가 아니야" 환경교육



10월 14일(월) 오전11시부터 대전YWCA 4층 대강당에서 "금강, 대청호 혼자가 아니야"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의 강의로 금강과 대청호의 아름다움과 그곳에서 귀한 생물들의 이야기를 나눴으며, EM친환경비누 만들기를 통해 유용한 미생물 EM으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됐다. 이번 환경교육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대전네트워크지원사업 주원천 소유역 거버넌스 환경사랑 실천마을 교육 및 정화활동의 일환으로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대청호 주변 2개 마을 주민 대상

으로 농사 폐기물 소각을 대신해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세종YWCA

장은정 부장

'2024 후원의 밤' 행사 진행



8월 29일(목) 조치원1927아트센터 다목적홀에서 '2024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부 기념식에서 YWCA공동기도문 낭독과 김인숙회장 인사말 등으로 시작됐으며, 2부 문화공연은 '평화를 그리다'란 이름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승희님과 최지현 밴드 우로보로스 공연이 진행됐다. 이번 후원의 밤 행사는 회원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회원들은 "오늘 후원의 밤이 세종YWCA가 지향할 목적을 되새기고 생명의 길로 씩씩이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8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세종YWCA의 아름다운 비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사)제천YWCA

김미경 국장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 큰 변화



제천YWCA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과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성인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각 2회기씩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려줌으로써 생활 속 실천의 시급함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탄소중립과 수질보전의 관계, 수질오염의 심각성과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을 나누고 친환경 주방세제 만들기 체험을 통해 수업 내용을 되새길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사)청주YWCA

한기연 팀장

'선을 넘어 평화로' 청주YWCA 충북청소년캠프 파주 DMZ 평화기행



9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충북 청소년들과 함께 '선을 넘어 평화로'라는 주제로 파주 DMZ 평화기행을 1박 2일로 다녀왔다. 충북 청소년 40명이 참여한 평화기행의 첫째 날은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통일층등 DMZ평화의 길을 탐방하고 둘째 날은 BEAT131벙커 DMZ대전차치료와 6.25납북자기념관 도슨트 투어로 진행됐다. 이 평화기행에서는 평화 특투유 토크콘서트, 퀴즈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평화',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남북한의 삶은 점과, 몰랐던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며 청소년들이 평화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평화기행에서는 청년리더 4명이 함께해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남북관계의 과거, 현재의 모습을 통한 우리의 분단의 현실을 보며 평화에 대한 키워드, 심볼, 열망을 담은 평화지도도 제작했다.

(사)충주YWCA

김성화 간사

자원순환캠페인과 충주 기후정의의 행동



9월 6일(금) 자원순환의 날에 맞춰 『알구살자: 알아두면 지구를 살리는 자원순환』을 개최했다.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를 위해 총 7개의 부스와 기후위기를 알리는 충주판 907기후정의의 행동을 함께 진행했다. 충주YWCA의 회원들은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을 기부하고 이를 청소년 동아리 Y틴이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충주시 지역 내 자립준비청소년을 응원했다. 또한, 907기후정의행동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족을 꼬집고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나비효과를 이끌어 오길 바라며 다인(die-in)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충주YWCA 조

영숙 회장은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이번 자원순환의 날을 계기로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과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기후정의의 행동을 확산하도록 노력하는 충주YWCA가 되겠다"고 밝혔다.

경상권역

(사)김해YWCA

이지현 사무총장

해반천 줄기 활동



김해YWCA는 10월 11일(금) 김해시 4곳의 국공립어린이집원아 학부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김해지사 임직원 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반천 주변에서 줄기, 흙공던지기, em을 투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환경 보호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또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를 인식하여 좀 더 나은 김해, 살기 좋은 김해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오늘날 미세먼지, 해양오염, 생태계 파괴 등 수많은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작은 실천부터 사회 전반의 변화까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어릴때 부터 환경을 사랑하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도 틀림없이 사랑할 줄 아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주역들이 되리라 확신한다.

(사)대구YWCA

정필선 간사

(사)대구YWCA 사무총장 이·취임식

10월 2일(수) 오전 9시 대구YWCA 6층 강당에서 사무총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제13대 최윤정 사무총장이 퇴임하고 이미영 신임 사무총장이 제14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했으며, 내외빈 6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1부 기념 예배에서는 목양교회 천영준 목사가 '씨를 뿌리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2부 이·취임식은 대구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정은영 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윤정 사무총장은 이임사에서 "YWCA를 세우신 분이 이곳에 부르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길" 부탁했다. 이어서 이미영 신임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100년 이후의 대구YWCA를 더 고민하고 바로 세우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람을 세우고, 환경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에 실무 지도력을 집중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마산YWCA

강현영 간사

경상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문화마당 진행



2024년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9월 6일(금),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한 도민들을 위해 문화마당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알록달록한 색상의 꽃으로 스타일링한 포토월은 양성평등한 화사한 미래와 새 경남을 표현한 것으로, 참석한 도민들은 양성평등 피켓과 함께 퍼포먼스 인증사진을 남겼다. 그리고 프리저브드 화병, 드라이플라워 엮서, 자개 손거울 DIY 체험 부스가 함께 진행되어 즐거움을 선사하고 기념식의 목표와 양성평등 메시지를 더욱 강조했다.

(사)부산YWCA

신정은 간사

유아차 가족 운동대회

10월 5일(토)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유아차 가족 운동대회를 개최했다. 일과 가정을 함께하느라 주말에도 자녀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부모를 지원하며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 간의 단합과 지역사회의 안전한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자리로 실시됐다. 메인 프로그램으로는 운동 전문가 지도에 따라 유아차를 활용한 근력운동을 진행했고, 자녀와 함께하는 체력단련존(축구, 농구, 굴렁쇠, 볼링)과 미아방지팔찌 만들기, 낚시놀이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스티커 사진 부스를 통해서도 가족 간의 함께하는 시간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은 부산광역시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을 통해 무료로 실시됐으며 총 56가정(141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생명을 위한 부산YWCA 운동이 더욱 힘을 얻는 시간이 됐다.

(사)사천YWCA

강류안 간사

사천시 환경부스운영 "환경이랑 놀자" 한마당



10월 2일(수) 사천벌리동 젊음의 거리에서 사천시환경교육기관·단체·활동가들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사천 시민들에게 환경 프로그램 참여와 체험을 진행했다. 우리 지역 환경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마당에서는 일회용품 체험으로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로 다짐한 부스가 운영돼 분리 배출도 일반 쓰레기 없는 행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 활동에서 나온 작품들로 리사이클 전시회를 펼쳤고, 환경교육센터교구를 이용한 게임, 환경퀴즈로 행운선물 나누기, 다육을 품은 소리 만들기,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실속 있고 흥미로운 부스 활동으로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웃음소리와 발길이 분주한 시간이었다.

(사)안동YWCA

남수정 간사

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빠육아교실



안동YWCA는 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빠육아교실을 9월 8일(목)부터 10월 20일(일)까지 총 13회 진행했다. 안동시 아동보육과 후원으로 진행된 이 교육은 육아에 관심있는 지역 내 영유아 양육가정 아빠 20명이 신청하여 교육이 진행됐다. 이 교육의 목적은 자녀 출산과 양육에 힘들어 하는 엄마들을 육아에서 쉬게 하며 아빠들이 육아에 전문가가 되기 위함이다. 교육은 아빠가 읽어 주는 재미있는 동화, 온몸으로 놀아주기, 아빠는 정리수납 전문가. 아빠가 만드는 아이간식, 가정내 영유아 응급처치 등의 단계별 육아에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 교육에 참여한 아빠들은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지역내 저출생극복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사)양산YWCA

성정미 간사

제17회 여성들의 이야기터



9월 3일(화) 오후 2시 양산YWCA 강당에서 '여성들의 이야기터'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회에는 도말순 명예이사, 박해숙 이사, 박정숙 회장, 이수진 부회장을 비롯해 80여 명의 양산시민이 참석했다. 10명의 발표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행복을 진솔하게 발표하며 이야기 마당에 이어갔다. 참여자들의 호응을 통해 대상은 베트남에서 온 원지아 씨의 '엄마 사랑해요' 작품이 선정됐다. 매년 개최되는 여성들의 이야기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지역여성의 역량 강화에 앞장설 것이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함께海(해)! 비치코밍!



8월 26일(월) 울산YWCA가 회원의 날을 맞아 '함께海(해) 비치코밍' 사업을 전개했다. 최근영 초록별지구수비대 대표의 '플로깅, 그 이상을 실천하게 된다' 강의를 듣고 신명해변 일대를 비치코밍하며 회원들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환경보호활동 취지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개인이 다회용기와 텀블러를 챙겨오는 등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버려진 낚시줄, 담배꽂초, 노끈, 일회용품 등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이 많았던 신명해변, 여러 개의 쓰레기봉투를 채우며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미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울산Y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사)진주YWCA

윤인주 간사

가족기후캠프 '청소년 없이 기후정의 없다'



진주YWCA는 10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1박 2일간 양산 '숲에서'에서 청소년가족기후캠프를 진행했다. 진주시 관내 초등생 이상 자녀를 둔 11가족 4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한 가족기후캠프는 '청소년 없이 기후정의 없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기후위기와 연관된 키워드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상황에 대한 강의를 듣고, 퀴즈를 맞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 가족연대활동으로 기후 가훈(슬로건) 만들기 대회가 있었다. 가족마다 '지구 온도는 낮추고, 재활용을 높이자', '가만히 두면 다 녹습니다', '푸른하늘을 꿈꾸고 지구를 품에 안고 기후정의 실현하자' 등 기후재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청소년들

의 생각을 슬로건에 담았다. 기후가족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가족은 휴대폰 적게 사용하기와 동영상 보지 않기, 디지털기기 소지하지 않기 등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디지털독소 실천도 잊지 않았다.

(사)진해YWCA

김방현 간사

제3회 이이효재길 축제



10월 12일(토) 2시부터 5시까지 진해 제황산 이이효재광장에서 진행 시민단체 10곳과 함께 이이효재 여성학자를 기리는 제3회 이이효재길 축제가 열렸다. 진해YWCA는 생명을 살리는 자원재활용으로 양말목 공예 체험 프로그램으로 부스에 참여했다. 양말목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다는 '재활용'을 알렸다. 다른 부스에서도 남은 가족이나 재료들을 가지고 재활용 작품들을 전시했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고 전달할 수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양말목 공예 체험을 하는 아이들이 버려지는 재료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신기해하면서 즐겁게 체험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다양한 재활용에 관한 프로그램 진행을 다짐했다.

(사)창원YWCA

하민화 간사

양성평등 주간 캠페인



창원YWCA는 9월 3일(월)부터 9월 9일(월)까지 양성평등 주간에 맞이해 창원지역 대학교 3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학 청년들에게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이 존재함을 알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양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힘썼다. 현장에서 실시한 양성평등 응원 메시지 쓰기과 OX 퀴즈는 대학 청년들의 양성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고,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양성평등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창원YWCA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활동으로 다가갈 것이다.

(사)통영YWCA

변은실 부장

놀이로 배우는 쓰레기의 쓸모



통영YWCA는 "놀이로 배우는 쓰레기의 쓸모"라는 주제로 26곳 유치원·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환경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교육' 그림책을 읽어 주고, 어린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지구를 지키는 5가지 방법으로 '필요없는 전깃불은 꼭 꺼요, 음식을 남기지 않아요, 양치할 때 걸을 써요, 물건을 아껴써요, 버려지는 쓰레기를 쓸모있게 만들어요'를 살펴보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쓰레기 분리배출 낚시게임'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환경을 사랑하고 보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포항YWCA

이예린 부장

중점운동 전개를 위한 추석맞이 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에서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친환경 물품, 먹거리 장터, 아나바다 장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운동, 양성평등운동, 기후생명운동 등 포항YWCA 중점운동 전개를 위해 실시했다. 친환경 EM제품, 핸드메이드 제품뿐 아니라 과일, 한과 등의 지역 농산

물, 회원들이 직접 만든 제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다.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다'라는 의미의 아나바다 장터 행사를 위해 회원들과 포항시민들의 물품 기증을 통해서 YWCA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운동에 동참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 전라·제주권역

### (사)광양YWCA

이효진 주임

#### 내일이면 늦어요. 함께 지구를 지켜요! 기후정의행진



광양YWCA는 10월 11일(금) 광양읍 일대에서 기후정의행진을 진행했다. 광양문화도시센터에서 주최하는 시민거리행진에 동참해 기후정의를 알리는 피켓을 들고 광양여고 사거리, 광양읍사무소를 거쳐 서천변까지 약 2시간 동안 행진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발등에 불 떨어진 이상기후", "2050 온실가스 ZERO 계획 수립하라!", "핵보다는 해원전말고 안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투기 반대!" 등 종이 상자를 재활용한 손팻말을 들고 행진했으며, 기후위기 최전방에 있는 청소년들 또한 동참하여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함께 나선 이 행진이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사)광주YWCA

조승리 과장

#### 김필레리더십 프로그램 <Back To The 1930>

김필레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광주YWCA가 주관하는 김필레 리더십 프로그램을 7-8월 총 4회에 걸쳐 수피아여자중학교 1학년 전체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필레 선생은 1922년 한국YWCA와 광주YWCA를 창립했으며, 선생의 기독교정신과 봉사정신을 계승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여학생들의 여성 지도력 향상을 위해 본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리더십워크숍, 텀블러 만들기체험활동, 특강이 이루어졌으며 수료식에는 김필레선생 전기 '쉽없는 열정'



에 대한 독서감상문대회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총 120편 작품이 출품돼 총 23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이번 김필레리더십 프로그램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의 삶과 정신이 잘 계승되어 봉사과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

### (사)군산YWCA

이소영 간사

#### 양성평등 사업 "Turn Of Life 갱년기 다시 봄"



군산YWCA 양성평등 사업으로 "갱년기 다시 봄" 교육을 8월 29일과 30일, 9월 5일과 6일 총 5회차 진행했다. 군산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영철 과장의 '갱년기 여성의 심리적 변화와 산부인과 이주향 과장의 '갱년기와의 만남'이란 강의 통해 올바른 갱년기 정보를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3,4,5회차는 갱년기에 대한 자조프로그램으로 반려식물 테라리움 만들기, 나를 위한 약선요리(약선버섯전골요리)만들기, 하루 씬에서는 서천치유의 숲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심신 안정을 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5회기 80여 명 참석자 모두 갱년기의 심리적, 신체적 위기를 조기관리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

### (사)남원YWCA

강현서 간사

#### 찾아가는 에너지 그린 교육

9월 22일(일) 지역 사회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너지 그린 교육"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그린 교육은 '음식물쓰레기 줄여, 자연을 푸르게!'라는 주제로 음식물쓰레기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과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또한, '나의 다짐 환경 나무 꾸미기' 활동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과 자신의 다짐을 글로 적어 나무를 푸르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YWCA는 지속 가능한 그린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녹색 생활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내 학생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

###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 (사)목포YWCA 2024년 추석바자회 실시



목포YWCA가 5년 만에 진행한 추석바자회를 9월 3일(화) 새롭게 단장한 1층 세미나실에서 700여 명의 지역민들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박재주 새목포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개장기도와 강경숙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과 이랜드 의류, 대구 흥패션, EM제품, 즉석 김치와 반찬, 먹거리 등을 준비했다. 더불어 판매 수익금은 12월 중 진행할 수익금전달식을 통해 '청소년 장학금, 소외된 이웃과 복지시설·사회단체 후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경숙 회장은 "추석바자회를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 이웃을 돕고 청소년 장학금을 지원해 이웃과 연계하고 사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사회의 사도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목포YWCA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나눔과 섬김의 실천 활동을 통해 생명살림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한다.

### (사)서귀포YWCA

현영아 간사

#### 기후정의 스크린 & 마이크, '바로 지금 여기' 영화 상영

서귀포YWCA는 9월 6일(금) 오전 10시 서귀포YWCA회관 강당에서 '기후정의-스크린&마이크'를 진행했다. 전국동시다발 한국YWCA RE100 행동으로 마련되어 기후정의 영화 '바로 지금 여기'를 함께 보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했다. '바로 지금 여기(2004)'는 폭염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돈의동 쪽방촌 주민들이 위기 속



에서 그들의 삶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협동과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에피소드1. 돈의동의 여름, 생태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 농민의 연대를 다룬 '에피소드2. 열음지기', '에피소드3. 마추보다' 로 구성되어 있다.

### (사)순천YWCA

신정은 간사

#### YWCA의 'C'를 찾아서-초기 선교사들의 정신을 찾아서



10월 14일(월) 이사, 위원, 회원, 실무활동가 27명이 초기 선교사들의 소명의식과 정신을 찾기 위해 순천시 매산동에 자리한 성지순례길을 탐방했다. 110년의 기독교 역사를 품고 있는 매산등은 1910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됐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황무지 같았던 조선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초기 선교사님들의 고귀한 소명의식을 깨달았다. 가장 낮은 자를 돌보시고, 병든자를 치유케 하시고,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순천YWCA가 나아가야 하는 길을 생각했다. 선교의 첫걸음을 함께 한 7인의 선배대처럼 YWCA는 세상 속에서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사)여수YWCA

설수연 간사

#### (사)여수YWCA 2024년 신입이사·위원 교육

8월 29일(목) 여수YWCA 4층 강당에서 신입이사·위원 5명을 대상으로 신입이사·위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여는 예배로 시작되어



YWCA 목적문 이해, 역사 및 운동, 조직·정책 이해, 소감나누기 및 마침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여수YWCA 신입이사·위원들은 이 교육을 통해 YWCA 목적 및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Y의 역사와 사업을 알아보고 Y의 조직과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사)익산YWCA

강지수 간사

#### (사)익산YWCA 익산여성영화제 영화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진행



9월 25일(수)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익산여성영화제에서 여성 씨름선수들의 이야기를 조명한 '모래바람(박재민 감독)'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사회적 여성스러움을 기대하는 사회적 기대치에 맞서고 남성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로였던 씨름판에서 여성 씨름선수들이 전문적인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싸우며 여성의 몸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향상시키려는 열정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선택했다. 감독과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박재민 감독은 "당시 직장생활 10년차에 번아웃이 당도한터에 강남역 살인사건까지 마주하며 여성으로 느끼는 무력감이 목젢까지 차올랐던 2017년 설날, 벼락같이 여자씨름을 만나 7년 동안 그 매력에 빠져살았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해당 영화는 11월에 개봉관에서 만날 수 있다.

### (사)전주YWCA

손예지 간사

#### <성평등 시선으로 다시보기> 집담회 진행

9월 26일(목) 미디어의 젠더감수성에 관한 성찰과 개선을 목적으로 '성평등 시선으로 다시보기' 집담회를 진행했다. '전북 미디어를 젠더렌즈로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전북의 신문, 방송을 통틀어 총 7개 매체의 콘텐츠 대상 4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분석하고 공유



하는 시간이었다.

사업을 담당한 최은주 간사의 활동보고로 시작하여 사회자인 한국YWCA 김은경 부회장의 인도로 3명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됐다. 정혜인 모니터링 단원이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미디어를 바라보는 변화된 관점과 소감을 공유했으며, 나미수 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미디어 콘텐츠 제작환경 실태를 알리고, 성인 지 감수성을 가진 소비자의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전북 언론 보도와 조직환경 속에 나타나는 성차별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제안으로 마무리했다. 전주YWCA는 추후 시민 캠페인 실시 및 보고서를 배포하며 미디어의 성평등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사)제주YWCA

김민지 간사

#### 양성평등주간 기념 캠페인 전개



제주YWCA 부속시설 (사)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9월 4일(수) 제주대학교 정문 일대에서 2024 양성평등주간 맞이 양성평등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함등으로 진행했다. 제주YWCA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고, 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일상 속 성차별 언어 개선 및 디지털성범죄 안전을 위한 양성평등 실현을,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 대학생들의 취업진로상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제주 안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및 인식 전환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에 스며든 고정관념, 왜곡된 가치관 등을 바로잡아 양성평등 인식을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공정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으로 만들어 갑니다.



소득정산제도  
설명 영상  
QR

####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하면,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정산하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보험료를 조정·정산 신청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2024년 11월에 정산됩니다.